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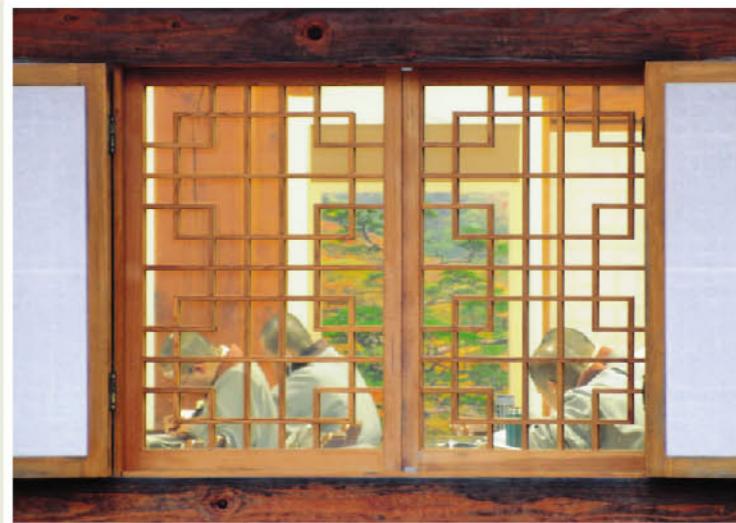


불기 2554년 겨울호 통권 제115호

雲門

목 차

호거산 운문사	2
죽림헌	3 배움은 편집부
교수논단	4 정진바라밀 명성 스님
수행, 그 속에 깃든 행복	6 초기 불교의 이해 Ⅳ 호진 스님
학인논단	14 아름다운 진산식 일전 스님
차례법문	16 21세기 佛教식 경영 Paradigm I 협서 스님
이와 같이 들었다	20 Good Morning, Good Evening 선준 스님
특별기고	22 진리를 깨닫는 길 편집부
노스님 탐방	24 중국에서 잠시, 한국불교를 생각하다 정우식
이 한 권의 책	28 마음 心, 우리가 늘 머물 그곳 선하 스님
선사이야기	30 운문사에서 쓴 편지 원효 스님
풍경소리 하나	32 부처님 법답게 살아라! 동우 스님
想	34 하늘이 편집부
운문, 운문인	35 도반 지오 스님
운문칼럼	36 아름다운 운문, 운문인 편집부
끝없는 여정	38 불교 속 Scientific Solution 편집부
답소	40 도심 속에 솟아나는 생물 원해 스님
나를 찾아가는 길	44 가시연꽃을 찾아서 복효근
풍경소리 둘	46 한 걸음, 한 걸음 편집부
수행의 두레박 하나	47 殘 雪 혜오 스님
둘	48 항상 깨어 있는 오늘처럼 선문 스님
운문논평	50 독송으로 발심하던 나날 덕인 스님
운문소식	52 행복 나눔 편집부
동불	54 어둠 속의 보물 편집부
	55



佛
— 論語 — 楠松金熙洙
베움은 따라 가지 못 할
것처럼 힘쓰고 이미
두려워 해야 한다
벼운 것을 오직 잊을까
— 論語 — 楠松金熙洙
佛
— 論語 — 楠松金熙洙
베움은 따라 가지 못 할
것처럼 힘쓰고 이미
두려워 해야 한다
벼운 것을 오직 잊을까

정진바라밀

명성 / 운문승가대학 학장



“비구들이여, 방일하지 말라. 나는 방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정각을 이루었다. 한량없는 온갖 착함도 방일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다. 온갖 물질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없다.”

계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무엇을 정진바라밀이라 하는가? 이미 일어난 불선업은 빨리 제거되도록 노력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업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업은 반드시 일어나도록 노력하고, 이미 일어난 선업은 더욱 증장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즉 4정근이 정진바라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옛적 부처님께서 숲 속의 사자왕으로 태어나셨을 때의 일입니다. 사자왕이 먹잇감을 구할 때, 작은 토끼를 잡을 때나 커다란 코끼리를 잡을 때나 똑같은 노력과 주의를 기울여 최선을 다하여 먹잇감을 구했습니다. 큰 코끼리라 하여 많이 노력하고, 작은 토끼라 하여 적게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할 때는 똑같은 마음으로 온 힘을 기울여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습니다. 정진은 이와 같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수행에 온 힘을 기울여 노력하는 것이 바로 정진입니다.

정진의 반대는 게으름입니다. 게으른 사람의 특성은 언제나 평계를 냅니다. 조금 있으면 일을 해야 하니 피곤하니까 수행하지 못하고 미리 쉬어야 한다, 일하고 나서는 일하고 났으니까 피곤해서 쉬어야 한다, 여행가기 전에는 여행을 해야 하니 미리 쉬어야 한다, 여행하고 왔으니 쉬어야 한다, 아프면 수행하지 못하니 아프기 전에 쉬어야 한다, 아프고 나서는 아팠으니 쉬어야 한다, 잘 먹으면 배부르니 쉬어야 한다, 못 먹었으면 힘드니까 쉬어야 한다는 등으로 수행을 하지 않고 게으른 생각을 냅니다. 이와 반대가 정진하는 사람의 특성이 되겠지요.

부처님의 마지막 유훈도 “계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였습니다.

“비구들이여, 방일하지 말라. 나는 방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정각을 이루었다. 한량없는 온갖 착함도 방일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다. 온갖 물질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없다.”『대반열반경』 “부지런히 힘써 나가라. 너희 비구여, 만일 부지런히 힘써 나간다면 어려운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땅히 부지런히 힘써 나가라. 비유하건대 작은 물방울도 쉬지 않고 흐르면 돌을 뚫는 것과 같다. 만일 수행하는 사람의 마음이 게을러서 공부를 쉬게 되면, 그것은 마치 나무를 비벼 불을 내고자 할 때에 나무가 뜨겁기도 전에 그만 쉬는 것과 같아서 아무리 불을 얻고자 해도 마침내 얻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일러 ‘힘써 나아김(精進)’이라 하느니라”『불유교경』

실로 이것이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수행은 가장 큰 선업입니다. 선업 수행은 매 순간 언제나 지금 노력해야 합니다. 평계를 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 병들어 죽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상이며 고통인 이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그날까지 계으르지 말고 정진해야겠습니다. ☺

초기 불교의 이해 IV

호진 스님 / 기념사

*본 고(稿)는 운문승가대학 특강 자료입니다.

목 차

1. 초기 불교
2. 봉다의 생애
3. 경전의 성립
4. 봉다가 발견한 진리 : 연기법
5. 사성제
6. 오온 - 무아
7. 윤회
8. 업과 과보

7. 윤회(輪迴, samsāra)

1) 윤회의 의미

'윤회'라는 말은 samsāra를 번역한 것이다. 이것은 'sam'과 'sāra'라는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sam'은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sāra'는 '달리다, 빠르게 움직이다, 전너디'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SR에서 유래한 말이다. 따라서 윤회, 즉 samsāra의 글자 그대로의 의미는 '함께 달리는 것', '함께 전너는 것'이 된다. 그러나 중국의 번역가들은 이 말을 윤회(輪迴), 즉 '도는 것'이라고 번역했다.

한 존재가 죽으면 이 세상이나 다른 세상에 새로운 몸을 받아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죽고 다시 태어난다. 존재는 여러 가지 세계에서 생(生)과 사(死)를 끝없이 되풀이한다. 그래서 이것을 '도는 것' [輪迴]이라고 한 것이다. 경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비유하면 어떤 장정이 다섯 개의 살이 있는 바퀴를 항상 굴려 쉬지 않는 것처럼, 중생들은 다섯 세계[五趣], 즉 지옥(地獄), 아귀(餓鬼), 축생(畜生), 인간(人間) 및 천상(天) 세계로 쉬지 않고 굴러다닌다.", "생사는 길고 멀어 끝이 없는데 중생들은 은혜와 사랑에 얹매여 생사에 떠돌아다니면서 여기서 죽고死 저기서 남[生]이 끊일 때가 없다."

윤회의 원리는 간단하다. 인간이 살아 있는 동안에 짓는 모든 업(業 = 行爲)은 틀림없이 결과가 있게 되고 이 결과는 다음 생을 존재하게 한다는 것이다. 업의 결과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윤회는 계속된다. 그러나 업의 결과가 모두 소멸되면 윤회는 끝나게 된다. 이것이 해탈, 또는 열반이다.

윤회사상은 불교인들에게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준다. 예를 들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의문에 "전생으로부터 와서 이생을 살다가 다음 생으로 간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다. 윤회가 없다면 "죽은 후에 보상도 별도 없다. 덕을 닦기 위해 바친 모든 노력도 헛것이다. 해탈을 얻기 위해 이 생에서 수행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 죽으면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결과는 똑같아 진다."라고 하는 주장에 어떻게 답을 줄 수 있겠는가. 결국 가장 잘 사는 것은 '동물적'으로 사는 것일 것이다.

인생의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도 윤회이론만큼 간단명료하게 답을 줄 수 있는 설명은 없다. 중아함(44권 170경)에서는 한 바라문이 봉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고따마시여, 어떤 인연으로 저 중생들은 다 같은 사람의 몸을 받았으면서도 지위가 높고 낮으며, 얼굴이 묘하고 묘하지 않나이까. 고따마시여, 이 세상에는 목숨이 짧은 이와 긴 이가 있고, 병이 많은 이와 적은 이가 있으며, 얼굴이 단정한 이와 단정하지 않은 이가 있고, 위엄과 덕망이 있는 이와 그것이 없는 이가 있으며, 비천한 종족과 존귀한 종족이 있고, 재물이 없는 이와 있는 이가 있으며, 나쁜 지혜를 가진 이와 착한 지혜를 가진 이가 있나이다.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차이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봉다는 이것에 대해 "그것은 모두 그들이 과거에 지은 업 때문이다."라고 한 마디로 그의 의문을 풀어 주고 있다.

자연의 신비 문제에 대해서도 윤회이론으로 답을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오리 새끼는 알에서 나오자마자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연못으로 달려가 헤엄을 칠 수 있는 것은 어째서일까?"라는 의문에 대해, "그것은 그들이 전생에 익힌 습관, 즉 업 때문"이라고 답할 수 있다. 이처럼 윤회이론은 간단한 하나의 형식으로 수많은 문제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2) 윤회의 세계

윤회는 욕계(欲界), 색계(色界), 무색계(無色界)의 3계 또는 지옥, 아귀, 축생, 인간, 천상의 5도(道)를 통해 하게 된다. 3계와 5도는 다른 것 같지만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일한 세계다. 단지 그 구분 방법상의 차이 때문에 다르게 설명되고 있을 뿐이다.(초기불교에서는 5道로 되어 있다. 부파불교에서 아수라의 세계가 첨가되면서 6道로 된다.)

욕계란 욕망의 생활을 하는 존재들이 사는 곳으로 지옥, 아귀, 축생, 인간, 그리고 저급한 신들이 사는 세계다. 색계는 욕망을 떠났으나 아직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사는 곳이다. 이곳에 있는 존재들은 '천상의 존재', 또는 '신(神)'이라 불린다. 그러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존재로서의 신은 아니다. 천상에서 살 수 있는 선업(善業)의 결과가 다하면 다시 다른 세계로 윤회하는 존재들이다. 이들의 육체는 미묘한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다. 무색계는 욕망은 말할 것도 없지만, 육체조차도 없는 존재들이 사는 세계다. 이들은 순전히 정신적인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다.

지옥, 아귀, 축생의 3도는 나쁜 세계이므로 악도(惡道)라 한다. 지옥은 주로 땅 밑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 사는 중생들은 업이 다 할 때까지 긴 세월 동안 극심한 고통을 받는다. 아귀도 (餓鬼道)에 사는 중생들은 목구멍이 바늘처럼 가는 반면, 배는 대단히 큰 존재들로서 항상 배고픔과 목마름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을 받는다. 축생도는 모든 종류의 벌레, 물고기, 새, 짐승, 그리고 용, 수신(水神), 목신(木神)들이 사는 곳이다.

인간과 천상의 2도는 선업을 지은 존재들이 사는 좋은 세계로 선도(善道)라 한다. 5도 가운데서 인간도는 중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 큰 특혜다. 인간도에는 고(苦)도 있지만, 이곳에서만이 수도를 할 수 있고 열반을 성취할 수 있다. 윤회의 원인이 되는 업도 인간도에서만 짓게 된다. 왜냐하면, 이곳에서만 윤리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다른 4도에서는 업을 소비할 뿐이다.

'윤회'라는 말은 끊임없이 돌고 도는 순환의 의미가 있지만 윤회하는 존재는 다섯 세계(五道)를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죽고 태어나고, 다시 죽고 태어나면서 순환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도에

서 목숨을 마치고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지옥이나 축생도에 떨어질 수도 있다. 역시 천상에서 목숨을 마치고 인간도나 지옥도에 태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한없는 긴 세월 동안 5도(五道)를 오고 가면서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고 하는 것을 되풀이하는 것이 마치 수레의 바퀴가 쉬지 않고 돌고 도는 것과 같다고 해서 ‘윤회’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이다.

윤회의 시작은 알 수 없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무시(無始)’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그 끝은 알 수 있다. 봇다처럼 법을 깨쳐 더 이상 업을 짓지 않게 되고, 이미 지은 업이 모두 소멸되면 윤회의 바퀴는 멈추게 된다. 따라서 경전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윤회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無始無終]”라고 하기보다는 “시작은 없지만 (또는 모르지만) 끝은 있다[無始有終]”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비유와 설명: 닭과 달걀의 문제, 원(圓)의 시작과 끝의 문제)

8. 업(業, karman)과 과보(果報, phala)

1) 업(karman)

‘업(業)’이라는 말은 ‘karman’을 번역한 것이다. karman은 ‘완수하다, 만들다, 하다’ 등의 뜻을 가진 KR이 어원으로, ‘활동’, ‘일’, ‘행위’ 등으로 번역된다. 그러나 경전에서는 일반적으로 ‘업’이라는 말로 쓰이고 있다. 업은 모든 행위, 즉 육체로 짓는 행위인 신업(身業)과 언어로 짓는 구업(口業), 마음으로 짓는 의업(意業)의 3업(三業)으로 구분한다. 이 3업을 좀 더 세분하면 10업이 된다.

10업이란, 살생(殺生: 산목숨을 죽이는 것), 투도(偷盜: 다른 사람이 주지 않은 물건을 훔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취하는 것), 사음(邪淫: 부모와 형제와 자매로부터 보호되고 있는 여자를 범

하는 것), 망어(妄語: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위하고 남을 위하고 혹은 재물을 위해 거짓말하는 것), 양설(兩舌: 이간시키는 말로써 사람들을 갈라지게 하고 당파를 만들게 하는 것), 악구(惡口: 추한 말, 즉 욕), 기어(綺語: 꾸며대는 말, 즉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하고, 법(法)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 탐(貪: 남의 재물을 엿보고, 구하고 바라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 진(瞋: 미워하고 성내는 것), 사견(邪見: 잘못된 견해, 구체적으로 말하면 업과 그 과보를 믿지 않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다).

이 10업 가운데서 살생, 투도, 사음은 신업이고, 망어, 양설, 악구, 기어는 구업에 속하고, 탐, 진, 사견은 의업이다. 업을 성질상으로 분류해서 선업(善業), 악업(惡業), 무기업(無記業)으로 나누기도 한다. 무기업이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중성적인 업이다.

업 이론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는 ‘인과의 법칙’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라는 ‘윤리적인 법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업 이론은 인과성과 윤리성이라는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업 이론의 인과성은 자연법칙에서와 같은 것이지만, 그 윤리성, 즉 선한 행위에는 좋은 결과가 나오고 악한 행위에는 나쁜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은 종교적인 것이다.

업을 행할 때 업[행위] 그 자체는 순간적으로 끝난다. 그러나 업은 그것을 행한 존재 속에 반드시 어떤 혼적이나 ‘세력(勢力)’을 남기게 된다. 마치 향(香)을 태울 때 향이 다 타서 사라진 뒤에도 향기가 옷에 베어들어 남게 되는 것과 같다. 업이 남긴 이 세력을 ‘업력(業力)’이라 하는데, 이것은 잠재적인 에너지가 되어서 그 존재 속에 머물러 있다가 기회가 오면 반드시 그 결과를 초

래하게 된다. 업력은 존재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들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동력(動力)으로 작용하고, 죽은 뒤에는 그들의 미래를 만드는 에너지가 된다.

업은 절대로 그냥 소멸되지 않는다. 이번 생(生)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생을 통해서 틀림없이 그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 그래서 업은 우리들의 현재의 운명뿐만 아니라 미래의 운명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존재의 모든 것은 업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다.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업을 지었으면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고 짐승이 될 수 있는 업을 지었으면 짐승으로 태어나게 된다.

한 존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즉 모습, 성격, 환경, 태어난 국토, 수명의 길고 짧음, 육체적인 조건 등은 그 존재가 과거에 지은 업의 결과이다. 역시 현재 짓고 있는 업은 그 존재의 미래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재료가 된다. 이처럼 존재의 모든 것은 업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업은 개인의 운명뿐 아니라 공동체의 운명도 결정한다. 단체나 사회의 운명은 그 단체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짓는 업에 의해 결정된다. 한 존재는 그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개인 업, 즉 불공업(不共業)을 짓는 것과 동시에, 역시 그 존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공업(共業)도 짓게 된다. 업은 존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궁극원리(窮極原理)이다.

인간의 행위를 업이라고 했지만 모든 행위를 ‘업’이라고 할 수는 없다. 업다운 업이 되기 위해서는 과보(果報)를 초래 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행위이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 행위는 업이 아니다.

과보를 초래할 수 있는 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의도적인 행위이어야 한다. 무의식적으로 행해진

행위는 과보를 초래할 힘을 가지지 못한다. 둘째, 윤리적인 행위이어야 한다. 즉 선한 행위이거나 악한 행위이어야 한다.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행위, 즉 무기업은 중성적인 업으로서 무정란(無精卵)과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은 업은 과보를 초래할 능력이 없다. 따라서 이 무기업은 엄밀한 의미에서 업이라고 할 수 없다.

업은 인간만이 지을 수 있다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간만이 의도된 행위를 할 수 있고 윤리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물들의 행동은 본능적일 뿐 의지작용이 밑바탕이 된 행위는 아니다. 역시 동물들은 윤리 생활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5도 가운데서 인간도에서만 업이 만들어지고, 나머지 4도에서는 업을 소비할 뿐이다.

2) 과보(果報, phala)

업과 과보는 식물에 비유해서 설명될 수 있다. 하나의 씨앗이 심어지면 그것은 씩이 나고 자라서 열매가 열리고, 익어서 떨어진다. 그 열매의 맛과 성질은 전적으로 그 씨앗에 따른다. 마찬가지로 업을 지으면 그것은 성숙하게 되고 언젠가는 반드시 과보를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과보의 성질은 업의 성질에 달려 있다(증일아함, 51권 52의 6).

예를 들어, 같은 밭에 고추 씨앗과 가지 씨앗을 심은 뒤 동일한 조건 아래에서 고추와 가지를 키우더라도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것과 같다. 고추 씨앗의 결과는 고추로 나타나게 되고, 가지 씨앗의 결과는 가지로 나타나게 된다. 고추와 가지의 모양과 맛은 고추와 가지를 키우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씨앗 속에 들어 있다.

업이 일단 결정되고 나면 그 과보는 피할 수 없다. 그것은 절대로 그냥 소멸되지 않는다. 언젠가는 그 업을 지은 사람에게 그 결과가 나타나고

야 만다. 여기에는 어떠한 예외도 있을 수 없다. 『법구경』에서는 이것을 “하늘에도 바다에도 산중 동굴에도 사람이 악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다(제9장, 127偈).

업은 개인의 의지작용에 의해 짓는 것이므로 전적으로 개인적인 것이다. 자신이 지은 업을 다른 존재에게 이전시키거나 다른 사람이 지은 업의 과보를 자기가 대신 받을 수는 없다. 설사 그 것이 선업의 과보일지라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업의 원리를 “자신이 짓고 자신이 받는 원리”, 즉 자작자수(自作自受)의 원리, 또는 자업자득(自業自得)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다. 역시 이것을 한 경에서, “이 악업을 지은 것은 너 혼자서다. 그러므로 그것에 대한 과보도 너 혼자서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MN, II, p.181).

업이 일단 이루어지면 그 성질에 따라 틀림없이 그 과보가 있게 된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산술적(算術的)인 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두 개의 업을 지었다 해도 그 결과는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그 결과는 다르게 된다.

예를 들면, 똑같은 보시를 하더라도 그 보시를 누구에게 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는 다르다. 음식물을 짐승에게 주는 것보다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결과가 더 크고, 범부에게보다는 수행자에게 주는 것이 더욱 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수행자에게 하는 보시보다는 도를 이룬 봉다와 같은 존재에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과보를 받을 수 있다. 짐승을 죽이면 그 죄는 무겁지만, 사람이나 성인을 죽이면 그 죄는 더욱 무겁다(중아함, 47권 180경 同, 39권 155경).

이와 같은 원리는 봉다가 고살라국의 빠라세나 치왕에게 한 설명으로써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대왕이여, 알아야 하오. 마치 저 농부가 땅을

잘 다루고 잡초를 없앤 뒤에 좋은 종자를 좋은 밭에 뿌리면 거기에서 오는 수확은 한량이 없지만 그 농부가 땅을 잘 다루지 않고 잡초들을 없애지 않고서 종자를 뿌리면 그 수확은 말할 것도 못 되는 것과 같소.” 즉 같은 넓이의 밭에 같은 양의 종자를 심는다 해도 그 밭의 상태에 따라 수확의 양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업의 과보가 나타나는 것도 이와 같다는 것이다(증일아함, 51권 52의 7).

업이 일단 결정된 뒤에는 외부의 영향은 미칠 수 없다고 했지만 업을 지은 존재의 노력에 따라 그 예상되는 결과를 다소 변화시킬 수 있다. 업을 지은 뒤에 다시 어떠한 업을 짓느냐에 따라 이미 결정된 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업의 과보를 나타나지 않게 할 수 있다거나 완전히 다른 것으로 되게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경전에서는 이것을 소금물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 한 움큼의 소금을 한 잔의 물속에 넣으면 그 물은 짜서 마실 수 없게 되지만 그것을 갠지스 강에 넣으면 갠지스 강물은 짜서 마시지 못하게 되지는 않는다. 한 잔 속의 물에 넣은 소금의 양과 갠지스 강에 넣은 소금의 양은 동일하지만 물의 양에 따라 소금물의 농도가 다르게 되므로 마실 수 있는 물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물이 되기도 한다(중아함 3권 2, 11; AN, III, 99).

이처럼 이미 결정된 업도 우리의 노력에 의해 그 결과를 어느 정도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나쁜 업을 지었어도 그 뒤에 좋은 업을 많이 지으면 이미 지은 나쁜 업에 대한 과보는 빠르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 변화시킬 수 있게 된다.

과보가 나타나는 시기는 업의 성질과 업이 처

한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것은 곡식이 종자에 따라 씩 나오는 시기가 다른 것과 같다. 또한, 동일한 종자라 해도 온도나 습도 등 그 종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씩 일찍 나오기도 하고 늦게 나오기도 한다. 업의 과보가 나타나는 시기도 이와 같아서 일정하지가 않다.

과보가 나타나는 시기를 세 종류로 나누면 이 생에서 지어서 이생에서 그 과보가 나타나는 업을 순현업(順現業), 그 과보가 다음 생에 나타나는 업을 순생업(順生業), 차 후생 또는 여러 생에 걸쳐 나타나는 업을 순후업(順後業)이라 한다. 그리고 과보가 나타나는 시기가 정해진 업을 정업(定業)이라 하고 그 반대인 것, 즉 과보가 나타나는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업을 부정업(不定業)이라고 한다(DN, III, p.415).

업을 지으면 틀림없이 그 과보를 받게 되지만 그 결과는 항상 동일하지는 않다. 수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업을 지으면 어떤 과보를 받는다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체로 선업을 지은 자는 천상이나 인간계, 즉 선도에 태어나고, 악업을 지은 자는 주로 지옥, 아귀, 축생의 세계, 즉 악도에 태어난다고 말하고 있다. 초기 경전에 의하면 악업을 지은 자는 설사 인간계에 다시 태어난다 해도 다음과 같은 나쁜 조건 속에 있게 된다는 것이다.

즉 살생(殺生) 업을 많이 지으면 건강이 좋지 않거나 일찍 죽게 되고, 투도(偷盜) 업을 많이 지으면 가난하게 태어난다. 사음(邪淫) 업을 많이 지으면 가족들이 정숙하지 못하게 되고, 망어(妄語) 업을 많이 지으면 말에 신용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멸시를 받게 된다. 양설(兩舌) 업을 많이 지으면 정신이 안정되지 못해서 항상 불안 속에 살게 되고 가정불화가 많을 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 벼롭게 된다. 악구(惡口) 업을 많이 짓는 사람은 얼굴이 못생기고 듣기 싫은 목소리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항상 미움을 받게 된다. 기어(綺語) 업을 많이 지으면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친척들이 쫓아진다.

탐욕심과 화를 많이 내는 업을 지으면 다음 생에서도 탐욕심과 화를 많이 내게 된다. 그리고 사견(邪見) 업을 많이 짓는 사람은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이 어지러워 안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문화중심지에 태어날 기회가 없게 되어서 봉다의 가르침을 들을 수 없게 된다. 심하면 귀머거리, 장님, 병어리가 되고 선법과 악법을 구별할 수 없게 된다(잡아함, 37권, 1048경; 증일아함, 7권 14의 1-10).

3) 윤회의 주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간이 죽으면 육체는 소멸되지만 영혼과 같은 존재는 살아남게 되고, 윤회는 이 영혼과 같은 존재가 다른 몸을 받아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힌두교와 자이나교에서는 한 존재가 죽어 육체가 사라지면 영혼과 같은 존재인 *ātman* 또는 *jīva*가 윤회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무아’(無我)를 주장하는 불교에서는 이와 같은 실체적(實體的)인 윤회의 주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불교에 의하면 인간 존재란, 비실체적인 몇 개의 요소들(五蘊)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모여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 불과한 것이다. 이와 같은 존재가 사라질 때 ‘누가’ 또는 ‘무엇이’ 이 생에서 다음 생으로 윤회 전생(轉生)하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업은 누가 지으며 그 과보를 받는 자는 누구인가. 윤회의 주체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윤회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업과 과보까지도 부정하는 결과가 되고 만다. 그러나 초기 경전에서는(잡아함, 335경; 방광대장엄경, 11권 26의 1) “업과 과보는 있지 만, 그것을 짓는 주체는 없다.” [有業報而無作者]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 문제는 불교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다. 부파불교 시대에 가서 이 문제가 여러 부파 간에 하나의 중요한 교리적인 쟁점이 되었지만, 초기 경전에서도 이미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 결과 몇 가지 설명이 나오고 있다. 크게 나누어서 윤회의 주체를 인정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이다.

먼저 윤회의 주체를 인정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뾰갈라(pudgala, 士夫)설을 들 수 있다. “오온 - 무아 이론”에서 보았듯이 인간존재는 다섯 가지 요소 즉, 색 · 수 · 상 · 행 · 식의 집합체에 불과한 것이고 이 다섯 가지 요소 이외에 다른 요소는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중담경(重擔經, 緊야함, 73경)과 같은 곳에서 봇다는 우리 존재에 이 다섯 가지 요소 이외에 다른 요소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즉 “나는 이제 무거운 짐과 짐을 가짐과 짐을 벼롭과 짐꾼에 대해 말하리니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라… 어떤 것이 짐인가. 이론바 오온이다. 어떤 것이 짐꾼인가. 이론바 뾰갈라(pudgala)가 그것이니 그것은 어떠한 남[生]과 어떠한 성(姓)을 가졌으며 어떻게 먹으며 어떠한 괴로움과 즐거움을 받고……”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5온은 짐이고 뾰갈라는 5온을 짊어지고 다니는 존재다(잡야함, 306경; 중일야함, 17권 25의 4). 이 뾰갈라가 윤회의 주체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은 힌두교에서 주장하는 ātman이나 자이나교의 jiva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다른 경전에서는 식(識, vijñāna)으로써 윤회의 주체를 삼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초기 경전에 의하면 식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여섯 가지의 기관(器官, 6根)과 그것에 대응하는 6 가지의 대상(對象, 六境)이 만날 때 일시적으로 발생했다가 곧 사라지게 되는 여섯 종류의 정신현

상[六識]에 불과한 것일 뿐 실체적인 존재는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몇몇 경전에서는 식을 윤회의 주체와 같은 존재로 말하고 있다. 이들 경전에서는 식은 육근과 육경에서 생기는 식과는 다른 것으로서, 자기 혼자서 존재하다가 여자가 임신할 때 외부에서 어머니 탯속으로 들어가는 존재처럼 말하고 있기도 하고, 천상의 신이 지상에 있는 왕의 간청에 의해 왕비의 태에 식의 형태로 내려와서 왕자의 몸으로 태어나는 것으로도 설명되고 있다. 또 다른 경에서는 열반을 얻지 못하고 죽는 사람의 식은 마라(marā魔)가 잡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존재처럼 나오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식(識)은 역시 뾰갈라처럼 영혼과 같은 존재로서 윤회의 주체 역할을 하고 있다(중야함, 24권 97경; 중일야함, 49권 51경; 잡야함 47권, 1 265경).

이상에서 본 것과 다른 설명으로서는 소위 말하는 ‘상속(相續, samtati)’ 설이다. ‘무아윤회’를 설명하는 데는 이 이론이 가장 그럴듯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설에 의하면 앞에서 본 뾰갈라나 식과 같은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도 윤회가 가능하게 된다.

이 상속설에 따르면 윤회하는 데는 한 생에서 다른 생으로 무엇이 반드시 옮겨 가야 할 이유는 없다. 윤회란 고정불변하는 어떤 주체가 한 생에서 다른 생으로 ‘이전(移轉)’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가 변화하면서 ‘계속(繼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잡야함에서는(13권 335경) 이 문제에 대해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업과 과보는 있지만, 그것을 짓는 존재는 없다. 이 온(蘊)들이 사라지고 다른 온들이 서로 계속된다(此陰滅已異陰相續).”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

이것을 다른 곳에서는 우유의 비유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우유로써 4종의 요리를 만들 수 있다. 즉 “우유에서 낙(酪)

이 되고, 낙에서 생소(生酥)가 되고, 생소에서 숙소(熟酥)가 되고 숙소에서 제호(醍醐)가 된다.”라는 것이다. 우유가 낙에서 제호로 될 때 우유에서 제호까지 변하지 않고 계속되는 어떤 실체적인 존재는 없다(장야함, 17권 28경).

우유가 변해서 낙이 되고 낙이 변해서 생소로 되며 생소가 변해서 숙소로 되고 숙소가 변해서 제호로 되는 것이다. 낙은 더 이상 우유가 아니고 생소 역시 더 이상 낙이 아니다. 우유에서 제호 사이에는 동일성은 없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우유 없이는 낙이 있을 수 없고, 낙 없이는 생소도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숙소 없이는 제호도 생길 수 없다. 물이나 기름과 같은 다른 물질로서는 아무리 우유에서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 준다 해도 낙이나 소나 제호는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초기경전에는 없는 설명이지만 좀 더 쉬운 비유를 들어 이것을 설명할 수 있다. 나비의 알은 애벌레로, 애벌레는 번데기로, 번데기는 결국 나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알’의 상태에서 나비로 되는 전 과정을 통하면서 어떤 고정 불변하는 존재는 전달되지 않는다. 알이 변해서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가 변해서 번데기로, 번데기가 변해서 나비가 될 뿐이다.

알과 나비는 같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알의 상태에서 나비가 되기까지 변하지 않고 옮겨가는 어떤 것도 없지만, 알과 나비 사이에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알 속에는 이미 나비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들어 있다. 예를 들어 모기 알에서는 아무리 해도 나비가 나올 수 없다. 거기에서는 모기만이 나온다.

이처럼 인간으로 있다가 다른 존재로 윤회할 때도 고정불변하는 영혼과 같은 윤회의 주체가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서 다른 존재로 존재 전체가 변화하는 것이다. 이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짓는 업(karman)이다. 업의 성질에 따라 우리는 천상의 존재가 되기도 하고 축생이 되기도 한다. 여기서 아트만[고정불변적인 영혼]과 같은 윤회의 주체가 반드시 있어야 할 필요성은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무아윤회’가 가능한 것이다. ●

참고문헌

- 마스아후미오, 이원섭 역,『불교개론』, 현암사
- 中村元, 김지건 역,『불타의 세계』, 김영사
- 와타나베 쇼오쿄, 법정 역,『불타 석가모니』, 동쪽나라
- 에띠엔 라모뜨, 호진 역,『인도불교사(1 2)』, 시공사
- 平川彰, 이호근 역,『인도불교의 역사(상 하)』, 민족사
- 金東華,『원시불교사상』, 뇌허불교학술원
- 쓰까모또外, 박태원 역,『불교의 역사와 기본사상』, 대원정사
- 마스아 후미오, 이원섭 역,『이함경』, 현암사
- 中村元三枝充惠, 慧頤 역,『바웃드하 불교』, 김영사
- 윤호진,『무아와 윤회문제 연구』, 민족사

아름다운 진산식

일진 / 윤문승가대학 학감 · 주지



경인년 시월 열나흘 이른 아침, 청풍료 큰방에 어간의 학장스님을 중심으로 대중스님 206명이 함께 하였습니다. 한철에 한 번은 경기적으로 어간 중심으로 앓게 되지만 보통 차례법문이나 자자회, 결계포살 등 대중이 다 모이는 경우는 법상을 중심으로 앓게 되지요.

올해 불기 2554년 삼동결제 방(榜)을 짜기 위하여(소임정하기) 모인 자라는 저에게 특별한 소임이 주어지는 날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형식의 공사자리에서 저에게 주어졌던 소임은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맨 처음 행자시절 그래도 '종두'라는 소중한 소임부터 시작하여 공양주, 채공, 시자, 큰방부전, 관음전부전, 별좌, 명등, 중강, 교무, 강사, 학감……. 그리고 주지. 이렇게 오늘 저의 소임은 정해졌고 저 개인적 소임 역사가 주마등처럼 스치면서 멀리 40년 전의 소임까지 추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월 보름 새벽 예불시간부터 특별히 기도 입재를 한 것이지요. 어느 때까지랄 것도, 어느 시간 까지라고 반드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그냥 혼자서 관음전에서 관음기도를 시작했답니다.

아주 어린 학인시절에 염불소리나 의식이 매우 서투르던 때 즐겨 찾으며 절도하고 염불도 익히던 관음전. 그 곳은 작아서 부담이 없었던 곳이었고 관세음보살님이라서

편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주지(住持)라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부담되는 소임을 살게 되면서 우연처럼 매우 자연스럽게 찾아가고 싶었던 관음전은 저에게 그 시절의 추억도 함께 간직된 공간이기도 해서일까요?

어찌 되었건 관음전은 제가 그냥 기도하고 싶어서 아주 오랜만에(사집반 확인 때) 찾아간 곳이고 그곳에서 저는 아주 단순하게 관음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매우 간절한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기도 중에 기도의 내용이 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째가 지극한 참회 기도입니다. 옛부터 사찰은 곧 참회도량이라 했지요. 무슨 일을 하든 참회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흔히 염불을 할 때도 참회 내용이 먼저 시작되고 처음 착발하던 날도 저에게 '참회진언' 하라고 일러 주셨던 걸 기억합니다. 수계의식 중 연비 할 때도 열심히 참회진언 했던 걸 기억할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어온 모든 업(業)에 대해서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했을 때 새로운 원력과 정진도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저의 기도 내용은 인욕입니다. 참지 못한다면 어떤 것도 이를 수가 없습니다. 참는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진심(眞心) 즉, 성내는 마음을 참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흔히 화가 난다고 말을 하는데 화가 나는대로 다 표현해 버린다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자신은 더 말할 것도 없고 화를 받는 상대는 괴로움, 그 자체일 것입니다.

결국 산다고 하는 것은 어느 종교 어떤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행복하고자 어제보다는 오늘이, 지난해보다는 올해가 좀 더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은 기본 욕구이며 희망이고 목적이 아닐까요.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일까요? 이고득락(離苦得樂)이라고 답합니다. 행복하고 싶지만 행복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 괴로움을 여의고 행복해지고 싶으면 제일 먼저 실천해야 할 일이 화내지 않는 일입니다. '성 안 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라고 하였듯이 성냄을 인욕하는 일부터 시작하여 매사에 참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무슨 문제든지 순조롭게 풀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근심 없는 단순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근심과 걱정 불만족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은 솔선수범입니다. 좀 유치한 듯한 저의 기도지만 제 수준에 맞는 기도를 하고 싶을 뿐입니다. 저는 학인 스님들이 아는 것처럼 놀 무엇인가를 지시하고 지도하고 확인하고 때로는 꾸지람도 하는 이런 삶이 저의 일상입니다.

그러다보니 저 자신이 무엇인가를 먼저 실천하고 행동하기 전에 지시부터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이런 일들을 참회하고, 가능하면 스스로 먼저 실천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려는 자신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솔선수범하는 대중 공동생활은 정말 화합 제일의 수행 처소가 될 것입니다.

기도는 수행자로서 끊임없는 자기반조이고 또 누구나 당연히 행하고 있는 줄 알면서, 새삼스럽게 학인스님들과 나의 기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삼동 결제를 하였고, 무엇이든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이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계절이 겨울이고, 겨울은 우리 모두를 뿌리로 돌아가게 하는 때입니다.

무성하게 시끄럽고 소란스럽던 날들을 잠재우고 침묵의 의미를 새삼스럽게 되새기게 하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들숨과 날숨에 죽고 살기를 거듭했던 시간들이 모여서 어느덧 1년이 지나고 저 또한 무사히 살아남아서 또 한 해를 보내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른 이에게 상처를 준 일도 있고 내가 상처를 받은 일도 있으며, 내가 위로가 되어준 적이 있는가 하면 내가 위로받은 일도 분명 있습니다. 이렇게 얹히고 철친 것이 우리들의 삶이고 생활입니다. 뿌리의 계절 겨울에, 각각 나의 뿌리를(자성불自性佛) 진지하게 생각하게 하는 계절에, 저는 주지 소임을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절에는 '진산(晉山)' 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전에는 '중이 한 절의 주지가 되는 일' 이라고 풀어 뒀습니다. 저의 진산식은 운문사 전통식으로 간략하게 경인년 동짓날 열나흘날 학장스님의 오백전 기도 회향법회 끝에 "새 주지스님 인사 한 말씀 하세요"하고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저의 기도 이야기로써 주지 진산식 인사를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진산식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21세기 佛教식 경영 Paradigm I

-현대(現代), Canon, (주) 연우와 함께
기업사례를 중심으로-

현서 / 사교과

목 차

I. 서론

- 1장.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2장. 연구 방향과 범위

II. 본론

3장. 불교와 경영의 만남

1. 경영의 일반적 정의와 불교식 경영의 차이점
2. 불교식 경영이 주목받게 된 경영의 시대적 변천 과정
3. 불교식 경영의 이해
4. 봇다가 제시한 경영 사상

4장. 불교식 경영의 실현

1. 실천하고 있는 기업들
2. 기업들의 경영 전략 비법
3. 공통된 경영 전략 및 분석

III. 결론

5장. 자료 요약 및 해석

I. 서론

1장.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자본의 확장과 수익의 창출은 기업이 생존하는 이유¹⁾이다.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기업을 어떻게 운영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기업 경영의 방식에 따라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과 목표, 생산방식과 인사관리, 더 나아가 기업의 문화와 이미지까지도 달라진다²⁾**. 기업의 색깔은 경영방식의 개별적 특성이며, 이는 수익과 연결된다. 본 연구는 여러 기업들 가운데에서도 불교식 경영 system³⁾을 도입하여 성공한 기업을 중심으로 21C 새로운 경영 paradigm⁴⁾을 제시하고자 한다.

요즘 시대에는 제품만 팔아서는 많은 이익을 낼 수 없다. 더 높은 이상을 가지고 큰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한다면, 그만큼 기업이 가져야 할 의식 수준도 높아져야 한다.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방식도 고급화가 되며, 고급화된 경영방식은 **기업의 정체성⁵⁾**을 일러 줄 종교와 연결된다. 그 중심에 불교가 있으며, 불교식 경영방식은 새로운 21C 사회에 가장 알맞은 Business Paradigm임을 논증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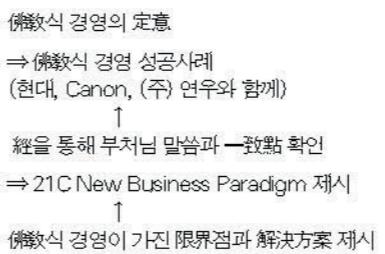
2장. 연구 방향과 범위

본 연구는 경영의 기본적인 정의와 佛教식 경영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고, 佛教식 경영이 나타나게 된 時代의 배경에 대해 살펴본다. 佛教식 경영을 실제로 하고 있는 기업들의 사례를 중심으

I. 서론

1장.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로 논문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부처님의 核心敎理와 佛教식 경영을 통해 성공한 기업들의 경영방식의一致點을 확인해 보고 더 나은 경영전략(Business Strategy)⁶⁾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제시해 보고자 한다. 또, 佛教식 경영이 가진 限界점은 무엇이고, 解決方案은 없는지 모색해 본다.



II. 본론

3장. 불교와 경영의 만남

1. 경영의 일반적 정의와 불교식 경영의 차이점

지금까지 경영의 일반적 정의는 이렇다.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기업이라는 조직을 통해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지속적·관련적 행위를 하는 것이다. 기업의 체계를 잡고, 운영·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칭하는데, 기업의 형태에 따라 경영의 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불교식 경영 (Business Management in

Buddhism)도 언뜻 보면 이에 포함되는 듯 보이지만, 기업의 가장 중요한 영리 추구적인 면을 볼 때 기존의 경영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불교식 경영은 바른 기업, 착한 기업 즉, **도덕적 윤리적 기업⁷⁾**을 標榜한다. 돈과 물질보다도 사람을 중시하는 經營概念이다. 18C 산업혁명을 계기로 20C 중반에 이르기까지 기업들의 목적은 제품을 많이 팔아 많은 수익을 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사람들의 정신적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은 단순히 많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종업원들을 기계적으로 부릴 수 없게 되었다. 20C 후반 기업들은 종업원을 인격적으로 대해 줘야 일의 효율이 향상되며, 더 나아가 회사의 수익과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사람(종업원, 소비자 더 나아가 사회)에게 눈을 돌리는 경영방식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불교식 경영은 이러한 흐름에 따라 나타난 경영방식이다.

2. 불교식 경영이 주목받게 된 경영의 시대적 변천 과정

시기	사상	특징
18C말 ~ 19C초	산업혁명⁸⁾	제품생산중시(대량생산)
20C 중반	자본주의⁹⁾ (자유주의를 기반)	제품질중시(생산감소)
20C 후반 ~ 21C	글로벌리즘¹⁰⁾	사람중시(제품이 아닌 사람, 즉 직원과 소비자에게로 눈길을 돌림)

6) 경영 전략은 바로, 경영을 하는데 필요한 특별한 수단과 방법.

7) 윤리적,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기업은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인재들이 모이게 되고, 그 인재들이 다시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해 내는 선순환 고리를 순환하게 된다. 조사에 따르면 S&P500 기업들의 평균수익률이 워낙 높아 미국에서 존경받는 기업의 주가는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 오르는 경향이 있다.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CEO의 지혜」조지호 저, 시그마북스 / 213p

8)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되어 세계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프랑스의 학자들이 가장 먼저 사용했지만 처음으로 일반화된 것은 영국의 경제사이인 아널드 토인비(1852~83)가 1760~1840년의 영국경제발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였으며 토인비 시대 이후 이 용어는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산업혁명시기에는 임금과 선거권, 노동에 대한 인권 문제가 대두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보다는 물질론적 관점이 더 팽배한 시기였다. Briteniker Encyclopedia/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9) 중세 봉건사회 이후 사유재산제도가 도입되면서 산업혁명으로 인해 확대한 자본을 축적한 자본가들의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시장경제체계를 말한다. 이러한 자본주의(Capitalism)의 특징은 자본의 자유화, 즉 사유재산제도를 둘 수 있으며, 모든 경제단위(자본, 노동 등)는 모두 시장경제 질서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을 수단으로 삼고 있다.

10) 세계화, 또는 범지구주의라고도 한다. 세계화의 특징으로 흔히 할규제, 자본의 유동성 증가, 대외개방을 들고 있다. 21세기 들어 정보통

1) 윤태익저, 「나비 :나로부터 비롯되는 변화」, 21세기북스

2) 손진혁지음, 「회사의 운명을 바꾸는 경영의 법칙」

3) 달라이 라마, 라우렌드 판 덴 마위젠베르흐 저음, 「리더스웨이」, 2009년

4) 뉴 패러다임 경영(New paradigm management)이란, 기업 내부적으로 근로자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파트너를 해소시키며, 공공부문의 서비스를 혁신하여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사람입국(立國)을 실현하는 새로운 경영전략이다.

5) 기업의 활동하는 특정한 부분을 인지시키는 것.

18C 말 ~ 19C 초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은 나라의 경제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 된다. 제품의 대량 생산을 통해 소비를 장려하고 상품의 질보다는 양으로 승부했다. 이때는 회사가 직원들 각각의 행복보다 상품·제품에만 관심을 두었으며, 사람은 그저 생산을 담당하는 회사의 기계 부속품일 뿐이었다.

20C 중반

그러나 20C에 들어서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품에 대한 호기심과 신비감이 사라지고, 하나하나의 제품에 대한 질적 측면을 중시하게 된다. 대량생산을 하던 회사들도 이제는 제품을 소량생산하고 절 좋은 고급스러운 제품을 만드는 데 집중을 했다. 이 때부터 기업들은 점점 제품생산의 한계를 경험하기 시작한다.

20C 중반 ~ 21C

21C가 도래하자 회사는 제품보다는 제품을 만드는 사람에게 눈길을 돌린다.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만족을 느껴야 하며, 직원들이 행복을 느낄수록 더 좋은 제품을 만들며 높은 성과를 내어 회사에 이익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된다. 기업 성장의 핵심은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이다.

3. 불교식 경영의 이해

인간을 중시하는 불교식 경영은 다른 말로 하면 **도덕적 경영, 윤리적 경영(Ethics in Business)**

or Moral Management)¹¹⁾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익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의 근본 설립 이유이다. 하지만 수익을 목표로 하는 기업 활동과 더불어 그 수익을 사람들과 함께하며, 사회에 환원하는 나눔의 실현을 실천하는 것이 불교식 경영의 핵심이다.

나눔과 보시는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담겨져 있다. 남을 위함은 기업 내 종사하는 종업원들과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 대한 정직과 믿음을 안겨주는 경영방침으로 이어진다. 사람을 위하는 경영은 이 시대에 만연한 **Moral hazard**¹²⁾를 극복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청탁과 뇌물로 인해 무분별한 자원의 낭비와 인간 사이의 신뢰를 망가뜨리고 이로 인한 부정과 부패로 반인격적 인간으로 변모하는 사회적 폐단을 막을 수 있다.

기업과 사회의 조화, 기업과 소비자 사이의 신뢰성 구축, 기업 내 종업원들 간의 배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경영전략 방법은 도덕적경영, 불교식 경영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

4. 봇다가 제시한 경영사상

For me, however the belief in the meaning of making dollars crumbled:

the proposition that the more money you earn, the better the life
you are leading was refuted by too much hard evidence to the contrary. -Michael Lewis,
Liar's Poker⁻¹³⁾

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인터넷에서 개인과 세계가 직접 마주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다. 개인단위의 개념은 즉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넓어지고 있으며, 전 지구적인 세계화를 촉진하고 있다.

11) 윤리적 경영(moral management)이란, 기업이 적법성 여부만이 아니라 입법의 취지, 사회통념까지 감안하여 기업 윤리를 추구하는 경영 방식이다. 윤리적 경영은 경영의사결정 및 행동이 윤리와 일치하며, 법과 윤리 기준 내에서 이윤을 추구하고, 경제적 책임 + 법적 책임 + 윤리적 책임을 기업의 책임으로 본다.

12) 상황 변화에 따라 자기 이익만 추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도덕적 해이'라는 의미를 지닌 일종의 기회주의 행동이다. 정보가 불투명하고 비대칭적이어서 상대방의 향후 행동을 예측할 수 없거나 본인이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별로 없을 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13) Michael Lewis (born 1960, New Orleans, Louisiana) is an American contemporary non fiction author. His bestselling books

더 많은 돈을 벌수록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물론 물질적인 것이 풍부하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사는 환경이 뒷받침되면 그만큼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필요한 고민 따위는 하지 않게 된다. 그렇다면 재벌들이 고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그 많은 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또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피로워하는 순간이 있는 것은 왜일까?

부처님은 왕자였다. 한 국왕의 아들로 비록 어렸을 때, 자신을 놓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긴 했지만, 자신을 끔찍이 사랑해 준 이모와 아버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있었으며, 남부럽지 않은 교육환경과 사고 싶고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다. 또한 다음 왕위의 계승자로 남부럽지 않은 지위를 누릴 수 있는 특권도 가지고 있었다. 돈이면 돈, 명예면 명예, 힘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던 그런 그가 왜 출가하여 스님이 되었던 것일까?

부처님은 이런 물질적 환경을 떠나 정신적 수행을 더 원했던 사람이다. 세속적인 것을 떠나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완성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좋은 옷과 좋은 음식, 아내와 자식, 왕이라는 지위와 권력은 그에게 있어서 한갓 덧없는 물거품일 뿐이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정신적 수행을 중시했던 부처님과 물질적 자본주의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

중도 이론 (The middle way theory)

include *Liar's Poker*, *The New New Thing*, *Moneyball: The Art of Winning an Unfair Game*, and *The Blind Side: Evolution of a Game*.

14) 중도(中道)란, 정신적 성찰과 세상에 대한 성찰을 통합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즉, 나와 남의 합일(合一), 너와 내가 없음을 가리킨다.

Self insight and insight to the world should be actualized as the WORK Completion indicates that both of them are done in daily life. ; buddhism Returns to the Market Place/ Daved Bubna Litic 188p ; Contemporary Buddhist Ethics, Edited by Damien Keown

부처님은 물질이 고통을 유발하는 근본적 원인은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물질 자체에는 선과 악이 서려 있는 것이 아니며, 어떠한 대상으로 인해 고통이 생기는 것은 그에 대한 자신의 마음, 생각에 달려 있다. **자신의 생각을 올바르게 재정립하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줄 아는 것이 수행이며, 정신적 자아 성찰을 통해 세상 밖으로 깨달음을 풀어내는 것이 진정한 수행의 완성이다.**¹⁴⁾ 부처님의 위대한 점은 이 둘을 잘 조화시켰다는 점이다.

단지 이론에만 국한하지 않고 이를 세상 속 현실에 적용시켜야지만 수행이 완성된다는 중도이론은 비즈니스라는 한 세계 속에서 실현시킬 수 있는 불교적 수행지침이다. 불교식 경영은 이러한 개념에 기초한다. 개인적 수행을 실제 사업에 적용시킴으로써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Business구축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18C~20C 중반에 걸쳐 물질주의와 자본주의는 완벽한 이론인 듯 보였다. 하지만 삶의 수준이 나아지면서 점점 자신에 대한 성찰, 나는 누구이고, 인간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잘사는 것인가 하는 정신적 고민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고민은 사회 전반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정치, 문화, 사회, 경제, 종교 등 여러 부문에 걸쳐 인간 본성에 대한 화두를 사람들에게 던졌다. 경영 또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어떻게 사람다운 경영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고, 이러한 고민에 부처님의 삶과 수행을 통해 답을 찾게 된다. ●

Good Morning, Good Eve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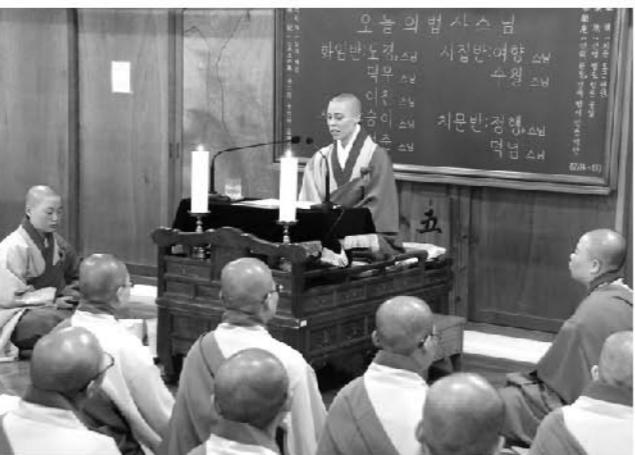
선준 / 사교반

If it's 7 p.m. in Korea, it's 3 a.m. in Denver, Colorado. Good morning and good evening, everyone. 사교반 선준입니다.

차례법문은 운문사 4년 동안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학인으로서 이 많은 대중스님들 앞에서 제 살림을 내보이는 자리이니만큼, 차례법문을 준비하면서 불성실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기회가 단 한 번밖에 없다면, 대중스님께 '꼭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 경험으로 알게 된 것들을 꾸밈없이 진실되게 전달하고 싶다면, 무엇을 말씀드려야 할 것인지 오랫동안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저는 운문사 최초의 외국인 학인입니다. 물론 저 이전에도 외국인 스님 몇 명이 운문사에서 공부했던 걸로 알고 있지만, 이 도량에서 잠깐 살다가 다른 공부를 하러 가신 그 선배님들과는 다르게 저와 현재 아래반에 있는 외국인 후배스님 두 명은 한국 스님들과 똑같은 완전한 학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입학시험부터 시작해서 큰방 생활, 강의, 올력, 소임까지 미흡하지만 한국스님들과 비교해도 모자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상생활에서 많은 부분들이 외국인의 눈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로, 한국스님들에게는 이해받기 어려운 일들로 다가가면서 서로에게 오해와 상처를 주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한 외국인의 경험을 통해 문화 간의 차이를 뛰어넘는 이해와 소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사람의 독특한 입장과 경험 속에도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편의 가르침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긴 여행을 다녀보면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처음엔 낯선 타향의 땅, 문화, 사람들이 신기하



신에게도,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서로를 받아들이는 일들이 훨씬 수월했겠지요. 그러나 저는 한국 승려로서 요구되는 가치들을 어느 정도 수용함으로써 얻어지는 '편리함', 예를 들면 한국인과 비슷해지는 모습 때문에 멀 눈에 띄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동시에, 저 자신을 그 가치와 문화 속으로 온전히 밀어 넣지 못함으로써 원래 제가 가지고 있던 미국의 문화와 충돌하는 것으로부터 '자아 상실감', 내지는 '정체성 혼란'과 끊임없이 맞서야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반 스님들은 종종 저의 말투가 너무 강하고 오만하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반 스님들을 부담스럽게 하는 저의 군인 같은 말투가 미국 사람들에게는 자신감과 리더십이 넘치는, 믿음직스러운 말투로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 번의 지적에도 저는 쉽게 그 말투를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미국인 도반스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님, 한국의 불교를 배우는 것이 한국인이 되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말투뿐만 아니라, 모든 행위와 사고방식까지도 그들에게는 너무 한국적으로 느껴지는 것이지요.

모든 것은 상대적입니다. 다른 언어, 다른 문화, 다른 습관, 그리고 다른 관습, 이들 중 그 어떠한 것도 절대적으로 옳고 그르다거나, 더 우월하고 열등하다는 등의 가치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개개의 언어와 문화 습관들이 모두 다 그것 나름대로의 가치와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경전에서 분별심을 버리는 것은 지혜를 향한 수행의 첫걸음이라고 말합니다. 머리로만 읽고 외웠던 이 가르침이 대중 가운데에 살면서 뼈에 사무치듯이 와 닿았습니다. 운문사의 일상 속에서 저의 옛 습관과 새로운 문화의 끊임없는 갈등은 저로 하여금 분별심을 버리게 하는 아주 귀한 연습입니다. 물론 그 연습에는 엄청난 고통이 따르지만요. 하지만 업을 바꾸는 일은 결코 쉽게 얻어지지 않는 것임을 알기에 오늘도 저는 이 양변의 분별을 뛰어넘는 연습을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부디, 때때로 이상하게 비춰지는 저의 모습들도 대중스님께 좋은 수행의 연습이 되길 바랍니다. 성불합시다. ●

진리를 깨닫는 길

- 맛지마 니까야: 95 쪽 경 11-34 -

편집부

(‘이것만이 진리’라는 말은 오류)

머리는 쑥발하고 나이는 16세인 까빠티끼라는 브라흐만 청년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고파마 존자님, 구전으로 내려온 고대 베다의 찬가와 경전에 대하여 브라흐만들은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를, ‘오직 이것만이 진리이다. 다른 것들은 다 가짜다.’라고 합니다. 고파마 존자님은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바라드와자여¹⁾, 고대 브라흐만 성자들, (베다) 찬가의 창작자, (베다) 찬가의 작성자, 이들의 고대 (베다) 찬기는 예전에 암송되었고, 설해지고, 편집되었다. 그런데 지금의 브라흐만들은 아직도 설해진 것을 암송하고, 암송된 것을 암송한다. 이들 (베다) 찬가의 작성자들 중 단 사람이라도 ‘나는 이것을 안다. 나는 이것을 본다. 오직 이것만이 진실이고 다른 것은 가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없습니다. 고파마 존자님.”

“이와 같이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지금 브라흐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근거가 없음이 드러나지 않았는가?”

“고파마 존자님, 브라흐만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존경할 뿐만 아니라 또한 구전으로써 존경합니다.”

“바라드와자여, 어떤 것은 믿음으로 완전히 받아들였지만, 그것이 비고, 공허하고, 거짓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잘 믿어지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이고, 진실이고, 바른 것이기도 하다. 또한, 어떤 것을 좋아하지만, 그것이 비고, 공허하고, 거짓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이고, 진실이고, 바른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진리를 지키는 (보호하는)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오직 이것만이 진리이고 다른 것은 가짜다.’라고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

(진리를 보호하는 길)

“그리면 고파마 존자님, 어떻게 진리를 보호합니까? 우리는 고파마 존자님께 진리의 보호에 대하

여 여쭙니다.”

“바라드와자여, 예를 들면 만일 어떤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나의 믿음은 이와 같다.’라고 말할 뿐 ‘나의 믿음만이 진리이고 다른 믿음은 전부 가짜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을 때 그는 진리를 보호한다. 그러나 아직 진리를 깨닫지는 못하였다.

만일 어떤 사람이 구전으로 내려오는 전승을 받아들일 때 ‘나는 구전을 받아들인다.’라고 말할 뿐 ‘구전만이 진짜이고 다른 것은 영터리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을 때 그는 진리를 보호한다. 그러나 아직 진리를 깨닫지는 못하였다.

만일 어떤 견해를 찬성할 때 ‘나는 그 견해를 찬성한다.’라고 말할 뿐, ‘그 견해만이 진리이고 다른 견해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을 때 그는 진리를 보호한다. 그러나 아직 진리를 깨닫지는 못하였다.”

(진리를 깨닫는 길)

“고파마 존자님, 그렇게 해서 진리를 보호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진리를 깨닫습니까?”

“바라드와자여, 어떤 비구가 한 마을에 의지하여 머물고 있다. 그 마을에 사는 한 장자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세 가지 관점에서 이 비구를 살핀다. 얼마 후 장자는 이 비구에게서 탐욕이나 성냄, 어리석음으로부터 나오는 행동이나 말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 비구가 가르치는 법은 심오하고 평화롭고 탁월하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쉽게 가르칠 수 있는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한다.

그리고 이 비구가 탐·진·치에서 벗어났음을 보고 그에 대한 믿음과 존경심을 갖는다. 존경심에 가득 차서 가르침을 듣는다.

가르침을 듣고는 기억하여 그 뜻을 새긴다. 뜻을 새기고는 그 뜻을 자신의 삶에 비추어 보아 받아들인다.”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 열정이 샘솟는다. 마음을 쏟아 매진하면 면밀한 관찰과 숙고가 생긴다.

면밀히 관찰하고 숙고하면 분발력이 생긴다. 굳건한 분발력으로 그는 최상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지혜로 최상의 진리를 훠뚫어 보게 된다.

이렇게 해서 진리를 깨닫게 된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진리에 도달하지는 못하였다.”

(진리에 도달하는 길)

“고파마 존자님, 그렇게 해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침내 진리에 도달합니까?”

“바라드와자여, 진리에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길은 똑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꾸준히 계속할 때 이루어지며, 그것을 발전시키고 연마할 때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진리에 도달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고파마 존자님, 진리에 마침내 도달하게 되면 진리에 도달하는 데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투노력하는 것이 진리에 도달하는 데에 가장 도움이 된다. 만약 이런 분투노력이 없다면 그는 진리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고파마 존자님, 그러면 분투노력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면밀한 관찰과 숙고가 가장 도움이 된다. 만약 면밀한 관찰과 숙고가 없다면 그는 분투노력 하지 않을 것이다.”

“고파마 존자님은 저희들에게 진리를 보호하는 길, 진리를 깨닫는 길, 진리에 도달하는 길에 대하여 훌륭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존자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수용하고 민족합니다. 고파마 존자님은 사문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존경을 저에게 불러일으키셨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귀의하여 재가신도가 되었다. ●

1) 바라드와자는 까빠티끼의 가문 이름.

중국에서 잠시, 한국불교를 생각하다

정우식 / 대한불교청년회 26대 중앙회장



아쉬운 마음으로 출발한 중국

사실 출국 직전까지도 아쉬움이 있었다. 가슴 한켠에서는 불만스러운 마음이 스멀스멀 거리기도 했다. 꼭 대만불교를 접해보고 싶었는데, 며칠 남겨 놓고 이렇게 연수 장소를 바꿔도 되느냐고…….

아마 10월 초였던 것 같다. 별로 하는 일도 없지만 아래저래 바쁘게 사는 시늉을 내며 살아온 나에게, 특별히 여행 취미도 없고 멋도 없고 돈도 없는 촌놈인 나에게, 외국에 나가볼 기회가 별로 없는 것은 당연지사일 터. 그런 내게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에서 주최하는 ‘포교신도단체 임원연수’ 차 대만에 가볼 생각이 없나는 제안은 행운이었던 것이다. 그런 만큼 기대가 커던 터였다. 불교계 단체에서 활

동해온 사람으로서 대만 불광산사를 다녀오면 시야가 달라질 것이다.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대만불교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등등의 말을 몇 년 전부터 귀에 딱지가 앓게 들어왔다. 그래서 나도 꼭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먹었더랬다. 그래서 이렇게 기회가 왔는가 싶었는데, 장소가 변경되었다고 하니 못내 아쉬웠던 게다.

그러나 아쉬움은 오래가지 않았다

11월 24일 12시 30분. 인천공항을 출발한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아쉬움은 날아가 버렸다. 포교원장 혜총스님을 비롯하여 20여개 포교신도단체 대표와 임원 60여 분과 연수를 위해 한 비행기를 탔다는



▲ 청량사 잠배



▲ 부처님 정골사리

것만으로도 뿐듯했기 때문이다. 한편으론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불교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궁금증과 기대도 생겼던 까닭이다.

중국불교 4대성지의 하나인 구화산과 영산대불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된 ‘포교신도단체 임원연수’는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김교각 스님의 진신사리탑을 모신 육신보전과 스님께서 중국에 도착하여 최초로 수행하신 청량사와 중국 청대의 고승인 무하스님의 육신불을 모신 백세궁, 부처님 정골(頂骨)사리를 모신 서하사 등의 성지순례를 통한 신심고취. 둘째, 포교활동의 방향설정, 현대사회와 불교, 중국불교의 현황과 특징, 불교지도자의 리더십, 2011년도 중점사업 계획 및 공유, 분임토의 등 강의와 토론. 셋째, 한국과 중국의 문화교류 및 합동법회를 통한 양국 불교의 이해 증진. 넷째, 중국의 10대 명산인 황산과 서해대협곡 산행 등의 프로

그램으로 구성되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중국 연수는 내가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함께 나누고 공감하고 토론하고 싶은 것도 많다. 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 다른 기회를 통하기로 하고 내가 바라본 중국불교와 중국에서 잠시 생각해 본 한국불교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한다.

내가 본 현재의 중국불교

현재 중국불교의 가장 큰 특징은 5가지라고 생각한다. 관광불교, 자본불교(기부불교), 대형불교, 첨단불교, 호국불교(육성불교)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물론 이것은 금번 연수기간에 돌아본 사찰과 사찰의 주요 기능, 그 사찰을 방문하는 중국 인민들의 모습 등을 보면 필자가 추론해 본 것이기에 대단히 단편적이며 잘못된 것일 수 있다.)

첫째, 현재 중국불교는 깨달음이나 신행문화를 중심에 놓기보다는 인민들의 휴식과 여가선용 차원의 기능을 많이 담당하고, 사찰 관광지로써의 역할이 커졌다. 이는 고찰이든, 현대적 사찰이든 공통적이었다.

둘째, 사회주의이면서도 자본불교의 성격이 강했다. 중국인 특유의 상술 매커니즘이 작동한 덕인지, 아니면 국가적으로 사찰을 국부 창출의 주요한 방편의 하나로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돈을 받고 돈을 내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였다. 사찰의 입장에서 보면 자본불교이고 사찰을 찾는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부불교로 보였다. 앞으로도 상당기간 중국불교는 선정과 지혜보다는 구복과 보시를 강조하는 흐름이 압도적일 수 밖에 없을 것 같았다.

셋째, 역시 중국은 중국이었다. 영산대불은 세



▲영산대불

계에서 최고로 큰 청동대불로 높이가 106m에 달했다. 그 옆에 작년에 개원한 영산법궁은 우리 돈으로 2,200억원을 투자하여 만든 세계에서 가장 큰 전각이라고 한다. 대국주의에 입각한 대형불교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았다.

넷째, 첨단불교의 모습도 띠고 있었다. 영산법궁이 그 단적인 예일 것이다. 불상을 비롯한 각종 장엄물이 최고를 지향한 예술성도 돋보였지만, 부처님의 일대기와 불법을 최첨단 미디어나 기술을 활용해 효과를 극대화시켜 전달하고 있었다. 이제는 불교를 접하기 위해 굳이 인도에 갈 필요없이 중국에 오면 다 된다는 속뜻도 읽혀졌다. 아마도 추후 중국불교에 주요한 방향 중의 하나가 첨단불교와 관광불교를 접목시키는 길이 될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다섯째, 당에서 지원하고 육성하며 국가적 책무에 임하는, 우리식으로 좋게 표현하면 호국불교적

성격이 강해 보였다. 내부적으로는 공산당의 영도성을 강화하고 인민을 단결시키며, 밖으로는 불교를 통해 한국, 일본 등 불교권 국가를 자연스럽게 중국의 큰 테두리에 둑고자 하는 중국정부의 뜻을 읽을 수 있었다.

중국에서 삼보일배를 하며 잠시 한국불교를 생각하다

한국불교의 현실에 대해 비판하고 앞날에 대해 비판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불교계의 현주소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의견에 많은 부분 공감하고 많은 혁신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사실이고, 어린이/청소년/청년포교 현황이 참담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나는 한국불교의 미래에 대해 근본적으로 회의해 본 적이 없다. 희망을 포기해 본 적도 없다. 중국 연수를 통해 나는 나의 생각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우선 무엇보다도 가장 수승하고 위대한 가르침이라는 교리에 대한 믿음, 전 지구적인 소통과 상생문화에 가장 적합하며 자리이타(自利利他)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르침이라는 믿음, 21세기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사상으로 갈수록 전 세계적인 공감과 대세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중국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육신 보전



▲쌍부선사와 한·중 불교 교류



▲서하사 대중공양

또한 하안거·동안거 등 한국불교의 수행전통과 스님들의 치열한 구도행, 다양한 신행문화와 포교방법론에 대한 시도 및 연구, 모범 포교당의 확산, 한국불교 개혁 및 유신노력 확대, 훠불/불교평훼/종교편향에 대한 인식 제고, 삼보외호 정신 및 전법의 지 확산 등은 그 좋은 징표이자 중국불교가 갖지 못한 한국불교의 힘이요, 매력임에 틀림없는 것 같다.

하지만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불자들이 서원을 세우고 원력정진하는 신행문화의 확립, 중생제도를 위한 수행관과 전법을 위한 해탈관 정립, 불자들의 경제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는 불교적인 경제기반 마련, 어린이/청소년 등 미래세대에 대한 전략

적 포교 강화, 음력중심 신행문화와 양력중심의 생활문화와의 조화, 음력/양력 신행체계의 통일, 출가와 재가의 상생과 공경문화 확산, 바람직한 사부대중공동체 모델 개발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낯선 땅 중국에서, 김교각 스님의 육신불을 모신 진신탑과 그 진신탑을 모신 육신보전을 삼보일배로 돌며 발원할 때에 문득 아래와 같은 생각이 들었다.

‘중국에서 지장왕으로 추앙받는 김교각 스님, 미국에서 주로 전법하시며 세계 4대 생불의 한 분으로 불렸던 승산 스님의 예처럼 한국불교는 이미 동서고금을 통해 세계화된 것이 아닐까? 그런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 한국불교와 스님이 존경스럽고 자랑스러워 이마를 더욱 깊이 대지에 묻었다. ●



마음 心, 우리가 늘 머물 그곳

- 송천사 혜장노스님을 뵙고 -

선 하 / 사집반



가을 하늘이 눈부시게 푸르른 날 아침부터 부산을 떠난다. 깨끗하게 다려 놓은 옷과 하얀 고무신도 한 번 더 살펴본다. 설레는 마음과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오늘은 운문사 대선배이신 혜장노스님을 뵙려 가는 길이다. 같은 반 스님의 노스님이신 혜장노스님은 서울에서 도량을 잡으시고 지역 포교를 위해 열심히 정진하는 분이시다.

꽉꽉한 서울 인심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대작 불사에 매진하시는 분이라는 도반스님의 말에 마음은 별색 서울에 가 있다.

혜장노스님이 주석하고 계시는 송천사는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에 자리 잡고 있다. 마을버스로 언덕 꼭대기까지 올라가니 아담한 담장 너머로 장독대가 보인다. 담장을 돌아가니 송천사 팻말이 나온다. 특이하게도 송천사는 일반 가정집 다섯 채를 연결하여 도량을 만들었다. 외관상으론 가정집 같지만, 안으로 들어서니 바로 법당이 보인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 같은 집에 뭐 쓸 게 있다구 오누?”

노스님의 편안이 더없이 정겹다. 송천사는 25년 전 처음에는 가정집 하나에 법당을 만들어 시작한 것이 지금은 무려 다섯 채로 살림이 커졌다.

“처음에는 방이 제대로 없어서 고생했는데 점차 조금씩 늘리다 보니 두 채, 세 채, 얼마 전엔 요 앞에 있는 집과 터를 매입했지. 살면서 욕심 좀 냈더니 이렇게 됐네. 허허”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불사를 지속하기란 어렵지만, 신도들이 법회 볼 공간과 공양할 공간은 있어야겠다 싶어서 시작한 그때의 간절한 마음을 생각하면 힘이 나신단다. 처음에는 가정집에 절이 들어선다고 하니 지역주민들이 반대도 많이 하고 텃세도 심하게 부렸단다. 그럴 때마다 노스님께서는 마을 어귀까지 오는 마을버스 기사에게 간식을 일일이 챙겨 주시며 송천사로 사람들 많이 실어달라고 부탁하시며 주민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장학금을 조금씩 모아 인근 학교에 기부하셨는데 아직까지도 꾸준히 장학 사업을 하고 계신다.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나가기도 어렵고 또 신도들의 시주로 쓸데없는데 돈을 써서는 안 되겠다 싶어 조금씩 모았어. 어디다 쓰면 좋을까 하다가 지역 주민을 위해 써야겠다고 생각을 했지. 요즘 거창한 포교도 많지만, 우리 같이 작은 사찰도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지역의 한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게 바로 포교의 시작이라고 생각해. 내가 내 위치에서, 즉 종교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바로 절을 가꾸고, 기도하고, 공양하는 일상생활 모두가 수행이자 정진이야.”

노스님께 고무신 이야기를 부탁했더니 쭉스러워하신다.

“내가 강원에 있을 때는 모든 게 참 귀하고 귀했지. 출타 나가기도 어려워서 고무신도 제때 못 샀는데 말이야. 내가 출타를 나가면 반스님들의 고무신을 사다 주곤 했는데 한번 나갈 때마다 많이씩 사다 보니 나중엔 반스님들의 신발 치수를 다 알게 되었지 뭐야. 후에 시숙님께서 운문사 학인들에게 뭘 공양하면 좋겠냐는 질문에 얼른 고무신이라고 대답한 것이 인연이 되어 일 년에 한 번씩 봄철마다 고무신을 공양하기 시작했어.”

‘송천사’라는 절 이름으로 온 고무신 박스을 보며 참 고마운 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바로 그 장본인을 만나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

“항상 운문사 후배들은 늘 마음속에 있어. 뭐라도 좋은 게 있으면 학인들에게 보내주고 싶거든. 요즘엔 풍족하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늘 생각하고 있어.”

어려운 절 살림을 쪼개어 공양해 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이 더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인들이 앞으로 중노릇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질문을 드려본다.

“팔만대장경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나? 바로 마음 심(心)자 이 하나여. 바로 이 마음이라는 놈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마음을 써야 하는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해. 이 마음 하나 회두 삼아 평생 놓치지 않고 살수 있다면 중노릇 잘한다고 할 수 있겠지. 그리고 각자의 위치를 잘 지키는 거야. 학장스님께서는 모든 사람과 물건에는 각자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정해져 있다고 하셨어. 좋은 절에 깃들어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야. 무슨 일을 하더라도 도량을 지키고 내 역할을 묵묵히 해낸다면 아마 후회 없는 삶이 될 거야.”

진하게 우려낸 차를 권하시며 이젠 딱딱한 이야기는 그만 두자신다. 귀한 손님들이라며 정성껏 차려주신 저녁상을 감사히 받고 작별 인사를 올린다.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도량을 수호하고 계신 우리 노스님 건강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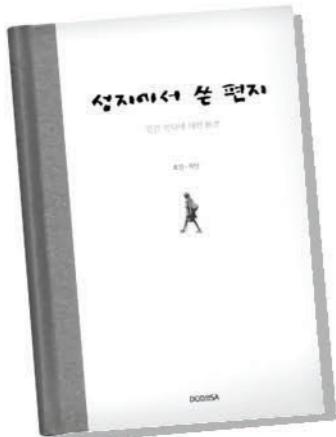
마음속으로 간절히 발원해본다. ●



운문사에서 쓴 편지

- 호진스님의 『성지에서 쓴 편지』를 읽고 -

원효 / 대교과



졸업여행을 다녀오니 내 경상 위에 책 한 권이 놓여 있었다. 인도로 성지순례를 간 호진스님과 한국에 있으면서 호진스님의 편지로 그 길을 함께 갔던 지안스님이 주고받은 편지글을 둘어서 『성지에서 쓴 편지』를 출판한 것이다. 올 봄, 운문사에서 있었던 호진스님의 초기불교 강의에서 이 책에 대해 언급한 것이 기억났다. 당시 호진스님은 이 책을 본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많이 달라 놀랄 수도 있다고 했다. 나는 책을 펼쳤다. 그리고 설렘으로 책을 한 줄씩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중간 중간 줄도 치고 메모도 했다. 다 읽고 나서 내가 한 메모를 보니 독자로서 이 책의 저자(호진스님)에게 보내는 한 통의 편지가 될 수 있을 듯싶었다. 뿐만 아니라 저자에게 보내는 이 편지는 이 책을 소개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펜을 들었다.

후진스님께

안녕하십니까?

푸르스름했던 나뭇잎들이 옷을 갈아입은 듯 누렇게 변하더니 모두 떨어지고 빛 가지만 남았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하셨는지요?

스님께서 자술하신 책을 공양 받았습니다. 그리고 반가움에 바로 들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인도를 나녀온 석후리 끗곳미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스님의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무엇보니도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스님께서 비스킷과 미숫가루 그리고 사과로 피나를 매우면서 가방을 짊어지고 바퀴 빠진 가방을 끌고 숲둥불둥한 길을 걸으셨던 여행과 저의 졸업여행은 너무 날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되고 불편한 여행이었지만 스님께서는 비 때문에 늦지 못하고 벽에 기대 쭉그려서 빛줄기를 바라봤을 때는 비에 흠씬 젖어 온 밥을 떤었을 깃다르다를 생각했고, 무기에 물려 잡을 설친 밥에는 나무 밑에서 매일 밥 먹기에게 공격당했을 깃다르다를 생각하셨다고 하셨지요. 그 말씀에 저는 한편의 러브스토리를 읽는 듯싶었습니다



나. 스님의 글 속에는 온통 깃다르다를 생각하신 내용뿐입니다.

스님, 이 책은 역시나 제가 지난 4년을 유문사 학원으로 있으면서 듣고, 읽었던 내용들과는 상당히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불자로서 어떻게 안식해야 하고,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신심을 가정한 그와 같은 부지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말씀에 지금까지 ‘신심은 두의 근본이요, 공덕의 어머니다.’라는 가르침에 의해 의심 없이 믿어왔던 많은 것에 대해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은 무엇인가’ 스스로 자문해봤습니다. 또한, 깨달음과 일반에 대해 쓰신 부분은 지안스님처럼 저도 진지하게 여러 번 읽었습니다. ‘붓다의 제자들은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 계(戒)를 빙고 수행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먼저 깨달음(연기법에 대한 이해)을 이루고 그 다음 고(苦)를 소멸시키기 위해 즉, 연민을 성취하기 위해 계를 맡고 출가한 뒤 수행을 했다.’라고 하셨지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깨달음이란 ‘대단한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지만, 오히려 붓다의 가르침이 저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말하고, 또한 원하는 깨달음은 연기법에 대한 이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열박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글을 계속 읽으면서 전 의문이 생겼습니다. 대·소승을 떠나서 실존했던 붓다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면 어느 것도 붓다의 가르침으로 인정하시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승불교전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공부하면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비록 2,50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영향을 받아 많은 경론(經論)이 생겼지만, 그 경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붓다께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을 붓다의 가르침과 다르다고 밀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붓다의 가르침은 한줄기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스님, 제가 정말 부러웠던 것이 한가지 있으면 바로 ‘두번’이었습니다. 아파면 아파하고 말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도반, 그리고 그 아픔을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도반, 서로의 의견을 아무런 꾸밈없이 말하고 들어줄 수 있는 도반, 이와 같은 도반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 얼마나 많이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스님과 지안스님께서 주고받으셨던 편지글에는 이런 도반의 편제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참 아름답고 향기롭게 느껴졌습니다. 저의 경험에 비춰 무긴대 정말 아파고 힘들고 울고 싶을 때,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싶을 때조차도 ‘나’라는 생각 때문에 제대로 한번 표현해보자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나’와 ‘너’라는 생각을 조금은 덜 할 수 있는 관계, 바로 도반이지 않을까요?

이 편지를 마무리하며 혹시 저의 짧은 소견으로 스님께서 전하고자 하셨던 메시지에 누가 되지는 않을까 내심 걱정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공부를 세대로 하지 못한 저의 무족함입니다.

두랑 한가운데 서서 가지만 남은 겨울 산을 바라보자니 절박함이 제 가슴 속에 들이옵니다. 이 절박함이 다 가기 전에 스님을 뵙고 전솔한 이야기를 나눠 보고 싶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을 덮으면서 한 생각은 ‘과연 좋은 책은 무엇인가’였다. 비록 시대와 문화 그리고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나에게 좋은 책이란 한 권의 책을 읽고, 그 책을 통해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공부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움직이게 하는 책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을 호진스님이 수없이 많은 자료를 검증하고 검증했던 것처럼 나 스스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그러다 보면 실존했던 붓다를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지는 않을까.

부처님 법답게 살아라!

동우 / 사미니파

치문 첫 철….
당시에는 이해가 전혀 안 되던 “진정한 치문을 알려면 겨울철을 겪어봐야 하지요.”라는 상반스님들의 말을 이제야 조금씩 실감하며 치문의 마지막 철을 맞이한다. 매서운 바람으로 손이 저절로 곱아지는 운문사의 겨울… 이건 사람이 살 수 있는 계절이 아니라고 날씨에게 팬한 탓을 하면서 따뜻한 온기를 찾는 나에게 휘모리보다도 더욱 날카로운 어느 선사의 말씀이 일침을 놓는다.

“수행자가 수행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출가를 했으면 수행자답게 부처님 법답게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인과를 받는 것이 더 나은 법이니라.”

일침의 주인공은 ‘10년 간의 長坐不臥’, ‘頓悟頓修說’, ‘고집스런 老僧’ 등의 수많은 꼬장꼬장한 꼬리표의 주인공인 퇴옹 성철스님이다. 현대 한국불교가 낳은 최고의 스승이자 불교계에서 ‘큰 어른’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성철스님. “山은 山이요, 水는 水이다.”라는 계송으로 불교도들은 물론 세인들의 화젯거리가 되었던 성철스님은 ‘원효스님 아래 최고의 스승’으로 극찬되어질 만큼 그 족적은 크나큰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성철스님은 경술국치 2년 뒤인 1912년 4월 10일에 태어났다. 스님이 태어난 곳은 경남의 지리산 자락인 산청군 단성면 목곡리. 청년기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던 스님은 요양을 위해 악탕기를 들고 지리산 자락의 大源寺라는 절에 들어가 수양을 했다. 절집에 살다 보니 오다가다 불교 경전들을 접하게 되었고 불교의 문턱을 드나들게 된 스님은 평생을 통해 불들고 놓지 못하게 될 커다란 의문에 부딪힌다. 바로 회두 참선에 몰입하게 된 것이다.

東山스님을 온사로 삭발 수계한 스님은 불법에 대한 탐구와 참선 정진의 의지를 불퇴전으로 이어갔다. 출가한 그 해 범어사의 金魚禪院에서 하안거를 시작으로 범어사 원효암, 통도사 백련암, 범어사 내원암을 오가며 피나는 정진을 했다. 1940년 스님이 29세 때까지 4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용맹정진을 계속하던 스님은 동화사 금당선원에 이르러 목숨을 건 수행을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름, 무언지 모르는 환희심과 기쁨이 가슴에 북받침을 느낀 스님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선방문을 열어젖히고 오도송을 읊었다.

黃河西流昆崙頂

황하의 강물이 서쪽으로 흘러가서

곧통산 꽈대기에 높이 솟고

日月無光大地沈

해와 달은 빛을 잃고 대지는 꺼져 내리도다.

遽然一笑回首立

문득 한바탕 웃고 나서 뒤돌아보니

青山依舊白雲中

청산은 옛 모습 그대로 흰 구름 속에 서있네.

이후 스님은 자운, 청담, 향곡 등 약 20명의 수좌들과 한국 불교 개혁을 위한 결사에 들어갔다. 첫째로 일제가 한국불교의 맥을 끊고 대처승들의 터전으로 만든 사찰을 정리했고, 둘째로 일본 비단제품의 호사스러운 가사를 피색으로 바꾸고 장삼과 바리때를 새로 만들었다. 셋째로 스님들 스스로 청규를 지키면서 위상을 높이는 작업으로 자운스님에게 「범망경」을 익혀 보살계를 주게 했다. 이러한 개혁은 전국의 사찰로 퍼져 나갔고 스님의 결사를 통해 지금의 한국불교의 체계가 잡혀나갔다.

1953년부터 1963년까지 스님은 문수암, 은봉암, 천제굴 등의 제방선원에서 안거하면서 정좌불와로 인욕고행 정진을 계속하였고 생식과 벽곡과 담식으로 일관했다. 이러한 용맹정진을 거치면서 성철스님의 불법수행의 깊이는 완숙기에 오르게 되고 그 깨달음이 분명하고 명료해지게 된다. 1966년에는 해인사 방장으로 계시면서 「육조단경」, 「금강경」, 「증도기」 및 증도이론 등을 대중에게 최초로 설법한다. 그 설법에 감동받은 여러 스님들과 신심 있는 불자들이 스님을 찾았다.

스님은 항상 시주물 아끼기를 비상과 같이 했고 백장스님의 청규인 ‘一日不作 一日不食’을 철저히 지켜나갔다. 그래서 스님과 함께 있는 모든 대중은 아침에는 밥을 먹지 않고 반드시 죽을 먹었으며 모든 일을 스님들이 직접 해야 했다. 이러한 청규에 얹힌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하루 종일 이어지는 용맹정진에 나무 세 짐씩 해 오며 모든 대중 일을 나누어서 하다 보니 한 명, 두 명 낙오하는 스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에



옆에서 보던 스님의 평생지기인 향곡스님이 나무 세 짐에서 두 짐으로 울력을 줄이기를 권하자 스님은 역정을 내신다. “이렇게 하다 수좌들이 하나도 안 남는데 어찌 할라고…….” “그럼 그때는 스님하고 나하고 들어서 공부하면 되제!” 성철스님의 말이다. 하지만, 그러한 성철스님을 움직인 향곡스님의 말이 더 재미있다. “에그, 그때는 나도 갈 판이야…….”

이렇듯 ‘一日不作 一日不食’이라는 청규를 굳건히 지키시며 15년 동안 교학과 선을 겸비해 가르치신 스님은 1990년 대 들어 스님의 세수 80을 넘기면서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한 생을 올곧게 수행자로만 사신 스님은 열반에 드시기 전 “모두들 寸陰을 다투어 열심히 살아라. 수행자가 수행을 게을리해서는 안되는 법이다. 출가를 했으면 수행자답게 부처님 법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과 열반 계송을 남기시고 우리의 곁을 떠나셨다.

직접 찾아뵌 적은 없지만, 저서의 문체와 사진만으로도 느낄 수 있었던 어른스님의 칠날 같은 기개와 정진력은 후학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준다.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우치고 행하기 위한 성철스님의 치열한 수행력은 초심자들에게 훌륭한 본보기가 되고 있다.

성철스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매서운 겨울바람은 한자락 마음을 쉴 수 있는 休風이 되고, 소복이 쌓여가는 눈은 저마다의 깨우침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는 운문사 학인들의 정진력이 되기를 발원해 본다. ●

하늘이

편집부

하늘이
 한 사람에게 큰 임무를 내리려 할 때는
 먼저 그 마음과 의지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 근육과 뼈를 수고롭게 하며
 그 몸과 살갗을 거칠게 하고
 그 자신을 궁핍하게 한다
 그리고 항상 행하는 일이
 해야 할 일과 어긋나게 하는데
 이로 인해 인내를 배우고
 무엇이든 이루지 못할 게 없게 되는 것이다

— 맹자 —



도반

지오 / 사집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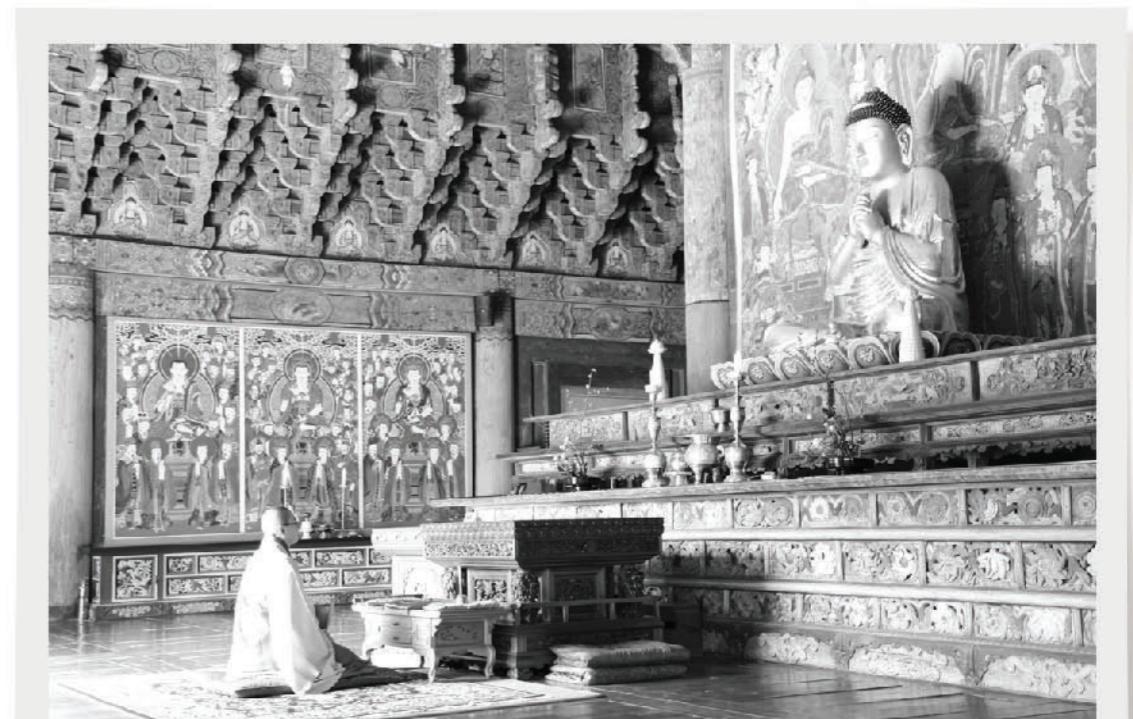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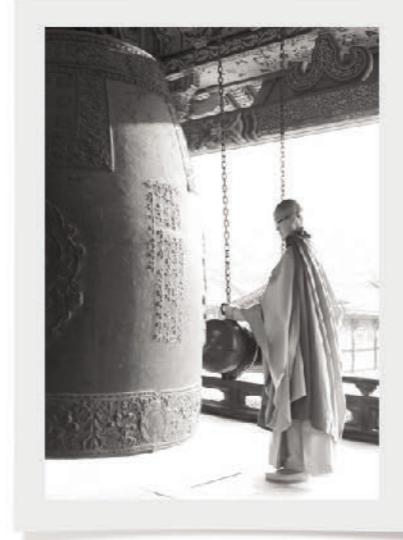
아름다운 운문, 운문인

편집부

지금이 그 때인지 모른다
다음 생에 꼭 출가한다던 ...

지금이 그 때인지 모른다
우리
다음 생에 다시 만나자던 ...

지금이 그 때인지 모른다
내가
그토록 바라던 삶
그 자리, 그 순간인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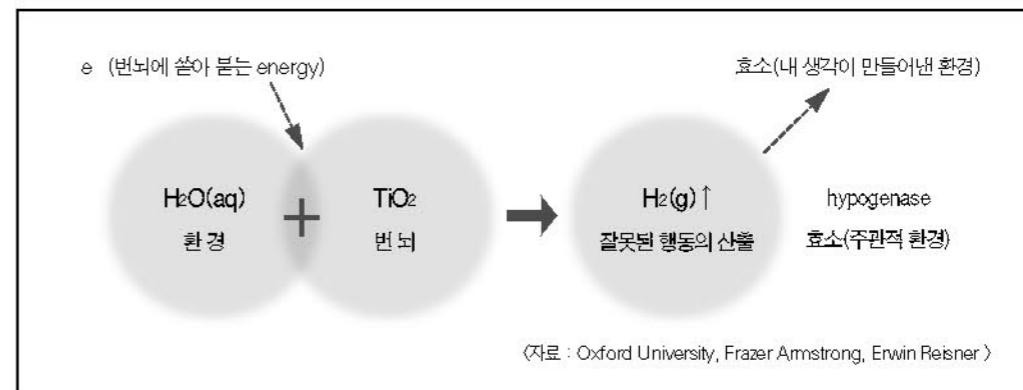
Scientific Solution

- 과학적 접근 방법 -

편집부

양전하와 음전하가 똑같이 구족된 형태가 아닌 한쪽의 과부하(overloaded)는 불완전한 상태를 유발한다. 우리의 번뇌와 고민도 감당하기 벅거운 나머지 불완전한 상태 그대로 스스로를 벼려두면 불완전한 상태는 극단적으로 우울증과 자살이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까지 연결된다.

요즘 빈번하게 발생하는 강간, 살인, 성폭행 사건들은 이런 내면의 결핍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방치해 놓은 결과물들이다. 당당하게 자신의 문제와 당면하여 문제에 대한 스스로의 답을 찾으려는 자신감을 갖지 않고, 사회를 향해 불만을 표출함으로써 불안정한 심리를 해결하려 한다.



일상생활 속 우리가 접하는 물건들은 작은 입자들(particles)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입자들은 원자핵(protons + neutrons)과 전자(electrons)로 다시 나눌 수 있는데, 이들의 배열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만 전기를 띠지 않는 안전한 물질(중성적 성질을 띤)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물질들은 어떤 상황을 만나느냐에 따라 전자를 내놓아 양이온(the positively charged ions)이 되기도 하고, 때론 전자를 얻어 음이온(the negatively charged ions)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자연계의 현상은 인간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된다. 우리가 만나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항상 똑같지 않다. 내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반응과 태도는 달라진다.

우리가 기분이 우울해서 누군가의 위로를 받고 싶을 때, 친구나 부모님 혹은 뜻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격려와 위로를 받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호감이 가거나 그 사람을 끌어당기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된다. 이때 나는 +(양전하) 상태이고,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은 -(음전하) 상태이다. 내가 부족한 부분을 상대방으로부터 얻으려는 심리는 자연계의 현상과 같다. (음전하 상태는 이동이 가능한 전자가 많은 상태(충분상태)이며, 양전하 상태일 때는 음전하를 잃은 상태(부족상태)이다.)

양이온과 음이온의 인력은 흡사 우리가 배고풀 때 음식을 끌어당기는 것과 같이 서로를 채워주는 관계이다. 예를 들어, F^{2+} (Fluore ions)는 두 개의 전자(-2 electrons)를 필요로 하는데, 이 이온은 두 개의 전자를 찾아 여기저기를 해매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우리의 생각과 번뇌는 무언가를 채워주길 바라는 부분들이다. 우리는 고민하는 부분들의 해결책을 찾아 위의 F^{2+} 처럼 여기저기 주변을 해맨다. 문제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러한 탐색적 행위(Seeking behavior)가 아니라 피하려는 회피행위(Avoiding Action)이다.

물과 티타늄 산화물은 햇빛을 받아 수소 $H_2(g)$ ↑를 발생시킨다. 여기서 물은 우리 주변 환경이며, 티타늄 산화물은 우리의 번뇌, 햇볕은 우리가 번뇌에 쏟는 에너지라고 보자. 사실상 우리를 둘러싼 주변 환경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를 주지 않는다. 단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내 자신이고 쓸데없는 걱정과 고민에 에너지를 쏟는다. 이러한 행동들은 내가 만들어낸 Hypogenase(효소)라는 내가 보는 환경(주관적 환경) 속에서 H_2 라는 잘못된 행동을 산출한다.

문제라고 생각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자.

TiO_2 라는 번뇌에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누구일까? 바로 나 자신이다. 어느 누구도 나에게 문제를 떠넘겨주지 않는다.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바로 나 자신이다. 불교에서는 공(空)사상으로 이를 잘 설명한다. 문제는 실상 문제가 아니다.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이며,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실을 걱정거리이다, 고민거리이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게 진짜 큰 일이라면, 나 아닌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고민으로 지금 이 순간 꿁꽁대고 있어야 하지 않는가?

사람들은 고민과 걱정 없이 살길 바란다. 완전히 고민 없는 삶을 살 순 없겠지만, 적어도 걱정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 가운데 이와 같은 과학적 접근 방식이 있다. 과학은 학문을 넘어 진리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다. 과학을 통해 문제를 바로 보고,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방편설이다.



도심 속에 솟아나는 샘물

- 미산 스님을 뵙고 -

원 해 / 사교과

아파트 숲이 무성한 도심 한가운데 솟아나는 샘물같이 맑고 청정한 한 분을 뵙고 왔다.

21세기 대안 포교 활동을 활발히 펴고 계시는 미산 스님! 불교계의 대표적 학승으로 하버드대 세계종교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중앙승가대의 교수로 재직 중이시다. '마음수행학교'와 함께 '미산스님과 함께하는 경전학당'을 통해 초기불교에서 대승불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통해 불교의 깊은 지혜를 전하고 계시며, 삼도선원의 선원장으로 승·속의 공동 수련공간을 만들어 '토요참선법회'를 열고 계신다. 온화한 가운데 느껴지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조심스레 말문을 연다.

항상 새롭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계신 스님께서는, 21세기의 포교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포교의 차원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부처님이 말씀하신 정법대로만 살아간다면, 그것이 진정한 포교라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21세기의 포교이자 우리의 공동체, 이웃, 사회, 국가, 지구촌 시민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스님께서 운영하시는 '마음수행학교'와 '자애미소명상'을 비롯해 다양한 법회 및 프로그램들이 자가자들에게 반응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상도선원을 아름답게 하고 현대식으로 하는 것이 하드웨어라면 이에 어울리는 소프트웨어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보통 사찰에서 불교 교양대학, 기초교리강좌 같은 것을 하듯, 처음 불교에 입문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로 마음수행학교입니다. '마음수행학교'는 초심자에게는 개별 지도를 해주고, 이미 수행 중인 분들에게는 더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게 방향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일요법회 형식인 '팔정도 온 가족 법회'는 지하에서는 일반 재가불자 법회, 이층에서는 어린이 법회, 3층에서는 청소년 법회를 열고 있습니다. 일요일만큼은 가족단위로 모두 참여해서 동시간에 법회를 하고 같이 마친 후, 모두 공양을 하고 갈 수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도선원도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팔정도가 불교수행의 핵심인데, 팔정도만 잘 이해하고 실천하면 따로 뭐가 필요 없어.'라는 생각으로 쉽게 접근을 했었지요. 그런데 너무 옛날 방식의 법회를 고집해서인지 법회가 마음처럼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곧장 법회 형태를 바꿨지요.

지금은 첫째 주는 주제가 있는 법회, 둘째 주는 '무차법회'라고 해서 주제 없이 자유롭게 질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셋째 주는 찬불가가 있는 법회, 넷째 주는 큰스님·명사 초청법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법회에서 법문하는 날에는 법문 끝에 '자애미소명상'을 하는데, 소요시간은 약 15~20분 정도이며 이 때, 바디스캔을 같이 합니다.

'바디스캔(body-scan)'이란 자신의 신체 기관에 '고맙다. 감사하다.'는 표현을 해주는 것을 처음 시작으로 해서 그다음은 자신을, 다음은 존경하는 사람, 가족, 사회의 순서로, 마지막은 원수에게까지 자비관을 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지금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안주하지 않고 계속 개발시킬 계획입니다.

디종교화 시대에 있어 종교가 현대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불교의 사회적 역할과 방향을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아주 큰 질문인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보화 시대잖아요. 정보화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속도입니다. 우리가 허겁지겁 다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시대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이용할 필요는 있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현대의 어떤 부분에 필요한가를 빨리 파악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의 교리와 신학적·철학적 바탕은 어찌 보면 부실하거나 거칠 수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수많은 도구들을 개발해서 미화하고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끔 재창조해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독교가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통용된다는 것은 기공을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불교는 과학적이며 이 시대에 맞춤형 종교란 것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교가 세상을 끌어가는 대안사상이라고들 하는데, 뭐가 대안입니까? "연기법이지" "중도야" "공사상이지." "그게 뭔데?"



“우리네 스님들도 원전 공부가 바탕이 되면, 각 분야에서 전문가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현대적 언어로 부처님 가르침을 쉽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으면 그걸 물라서 답은 못하고 되려 묻습니다.

이런 대답들은 ‘내가 기진 광산에 금이 잔뜩 있거든요!’ 이렇게 자랑만 하는 겁니다. 광산에 금만 잔뜩 있으면 뭐해요? 금을 캐서는 세공을 해서, 금가락지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고, 시계도 만들고 이렇게 했을 때 금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 과정을 잘 못하고 있어요. 이것을 잘 실행했을 때, 불교가 금세기의 대인종교라는 말을 감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서양인들이 불교를 더 깊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풀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불교를 통해서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받고 힘들어 했던 것들을 살펴보니 패리다임이 잘못됐다는 것을 금세기에 발견한 거죠. 서양인들은 적극적입니다. 불교와 심리학을 접목하기도 하고, 물리학과 생명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접근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네 스님들도 원전 공부가 바탕이 되면, 각 분야에서 전문가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현대적 언어로 부처님 가르침을 쉽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젊은 사람들이 불교에 입문하지 않아요. 디지털 시대에 접어든 게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아날로그 방식만을 고수한다면 당연히 도태되고 쇠퇴할 수밖에 없지요.

시대에 발을 맞춰야 합니다.

활동 초반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아비달마, 간화선 등의 많은 강의를 하셨는데, 한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스님들에게

한국불교의 핵심이 무엇인지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한국불교의 핵심, 미국불교의 핵심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부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그리고 그 가르침이 우리 삶의 질적인 변화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것이 중요하지요. 그렇게 얻어진 것을 한국 스님이나 한국 불자들이 전하면 그것이 그대로 한국불교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적 사상의 색깔은 굉장히 통합적인 면이 강해요.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동아시아권에서 문화적 교량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상 동서사방을 아울러서 가장 핵심적이고 유용한 것들을 취해서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원융회통사상이 발달해 있구요.

어른 스님들께서는 선을 하면 책을 놓으라고 하시는데, 선과 교의 회통에 대한 스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회통이라는 것은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깊이 들어갔을 때, ‘아, 이게 서로 통한다.’라고 하는 생각과 안목이 생기는 거지 이것저것 고적거려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선불교를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궁금증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부처님의 원래 말씀하고 어떤 식으로 관계가 있는가?’

원시불교, 초기불교, 대승불교를 거쳐, 참선을 해보니 그제서야 부처님의 공부 방법이 일맥상통하고 있음을 알았으니까요.

또, 중국과 일본은 완전한 종파사상이고, 한국

은 원융회통사상입니다. 원효스님, 보조국사 자눌이 그랬고, 역대로 많은 큰스님들이 그랬습니다. 최근에는 박한영 스님이 선 일변적으로 나가는 한국 불교를 비판하면서 교학을 중심으로 선을 통합하는 일을 하셨는데, 이러한 노력은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 전통 강원에도 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파격적인 강원교육과정 개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통 강원의 교육 방식이 바뀌는 것은 수많은 논의와 고민을 거쳐 진행될 것입니다. 강주스님들은 아직까지도 반대의 입장이고, 많은 것을 잊을 것이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전통 교과는 한문 중심의 텍스트 강의이다 보니, 내용보다는 글을 새기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주객이 전도된 것이 사실입니다. 만일 한문경전을 깊이 있게 보고 싶다면 한문전문승가대학원을 등록해서 공부하는 등의 방편도 있잖습니까?

저는 강원의 교육방식이 글자 익히는 것에만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진리를 실천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세상은 초단위로 변합니다. 지금은 대장경이 손안에 들어와 있는 세대예요. 대만의 신수대장경이 아이폰 안에 바로 놉니다. ‘80 화엄경’이 바로 손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야 합니다.

지금 시대에는 도심(道心)을 위해서 무조건 세속과 멀게 만 살아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당면한 현실과 앞으로의 향방을 고민하고 있을 학인스님들에게 격려가 되는 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학인스님의 경우, 편견을 갖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열린 마음 자세가 아주 필요하지요. 수행은 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태도로 어떤 안목으로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위파사나를 하든 간화선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수행의 차원

이, 그 깊이가 달라지죠.

안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활짝 열려 있으면 연기 중도적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떤 경우에든 항상 적용됩니다. 그런 것이 불교적인 것이고, 불교 정법에 입각한 것입니다.

학인 때에는 열심히 이것저것 해 볼 필요가 있지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자기와 개합이 되는 것 이 있습니다. 그때는 더 해매지 말고 중심을 딱 잡아서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위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열고 닫음을 잘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열렸다고 해서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고, 닫을 때에는 단호하게 닫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연기 중도적 관점이 살아 있는 거예요.

바쁜 안목과 정견으로써, 산천초목을 보고도 부처님 법문을 읽어 낼 수 있는 인천의 대장부가 될 것을 재차 당부하시며 인터뷰를 마무리 지으셨다.

지금 여기서 한국불교의 역할과 젊은 수행자들에게 또 하나의 길을 제시해주고, 먼저 그 길을 걷고 계신 미산스님, 스님과의 만남은 법구경의 한 구절을 떠오르게 한다.

“똑같은 꽃이라도 아름다운 색깔과 향기를 내뿜어 사랑 받는 꽃이 있듯이,

실천이 따르는 사람의 말은 비록 그 메아리가 조용하지만 멀리 울려 퍼진다.”

귀한 시간을 내어 샘물 같은 법문을 들려주신 삼도선원의 선원장 미산스님께 두 손 모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스님이 계신 그 어느 곳에서나 날마다 사부대중과 행복하시길 발원합니다. ◎



가시연꽃을 찾아서

복효근 / 교사, 시인



학년 말이라 시험도 끝나고 아이들이 지쳐있을 즈음이다. 그 놈의 시험은 이름도 가지가지 많기도 하다. 하나같이 아이들을 한 줄로 줄 세우는 시험이다. 아이들의 능력과 관심은 그들의 얼굴만큼이나 다양한데, 우리 사회는 오로지 지식을 달달 외우고 문제를 잘 푸는 능력만을 가지기를 바란다.

시간을 쪼개어 아이들과 함께 책 읽는 모임을 해오고 있다. 지난 주엔 시집 한 권을 선정해서 읽었다. 오늘은 아이들과 그 시집을 펴낸 시인을 찾아가는 날이다. 아이들이 싫어하는 독서 영역 가운데 하나가 '시'다. 시를 어려워하고 재미없어 한다. 그래

서 아이들에게 시 또는 시인과의 거리를 좁혀주고 싶었다. 우리 생활과 현실에 밀착된 시를 쓴 시인을 찾아 이 시인을 택하기로 한 것이다. 아이들을 꼬드겼다. 아주 멋진 시인이라고 그가 사는 모습은 더욱 멋지다고.

동료교사 한 분의 도움을 받아 두 대의 승용차에 나눠 타고 섬진강을 따라 난 국도를 타고 하동으로 향했다. 안개가 열게 긴 섬진강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모처럼 포근한 겨울 날씨에 수면 위엔 반짝이며 출렁이는 물이랑을 타고 청동오리며 기러기, 논명이리, 겨울 철새들이 노닐고 있었다. 겨울임에도

생명의 백박이 강줄기에서 느껴진다. 운전을 하면서 나는 애써 아이들에게 그 아름답고 푸르른 생명의 풍경을 중계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잠을 자거나 열심히 휴대전화 게임을 하고 있다. 저 세계가 바로 우리가 귀의해야 할 참다운 세계인데…….

마중을 나온 시인의 웃차림에 아이들은 의아하다는 눈빛이다. 깨끗하지만 낡은 입성은 수수하다 못해 조금은 군색스럽기까지 했다. 시인의 집은 자리산 아래 깊은 산골에 자리 잡고 있었다. 시인의 집 역시 누추한 오두막에 가까웠다. 집 주위는 적막했다. 시든 파초 줄기와 잎이 진 해당화와 모란이 한 그루씩 서 있었다. 마당엔 떨 나무가 쌓여있고 조그만 텃밭은 겨울 남새를 가꾸는지 비닐 거적에 덮여 있었다. 멋진 외모와 그럴싸한 살림살이를 기대했을까, 아이들은 자신들의 기대와는 사뭇 다르다는 표정이다.

아이들의 눈빛을 읽었을까. 시인은 '가시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시인의 마당엔 돌을 깎아 만든 조그만 물화분이 있다. 이 네모진 물화분에 가시연을 키운단다. 줄기와 잎 그리고 꽃을 둘러싼 꽃받침 까지 가시가 돌아있는 이 가시연은 넓은 연못에선 그 잎 하나가 지름 2미터까지 자란단다. 그 정도라면 줄기는 또 얼마나 길게 자라겠는가. 그 가시연이 조그만 물화분에서 어떻게 자랄까? 결론부터 말하면, 잘 자란다는 것이다. 물이 좁으면 잎을 아주 작게 피우고 수심이 얕으면 그 줄기 또한 짧게 자란단다. 그리고 작은 대로 아름다운 연꽃을 피운다고 한다.

시인은 월급쟁이를 하면서 돈을 벌기도 했었던 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돈을 안 벌고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돈을 덜 쓰면 되겠지 하는 답을 얻었단다. 소위 말하는 '자발적 가난'을 선택한 것이다. 그래서 도회지의 삶 대신 자연과 가까운 시골 생활

을 택하게 되었노라고 했다. 좁은 물에 뿐리 내린 가시연이 그의 욕망을 줄여 최소한 물과 공기로도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것과 같은 삶을 택했노라는 것이다. 그의 입성과 그의 세간, 그의 시, 그리고 생명평화운동을 하면서 살아온 그의 삶의 궤적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시인은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과 비유로, 겸박한 삶으로도 얼마든지 자신을 아름답게 꽃 피울 수 있다고 조곤조곤 들려주었다.

시인의 이야기를 듣고 부끄러운 것은 나였다. 나는 때로 죽어라 공부를 하지 않는 이 아이들에게 늘 베른처럼 "너희들이 십년 뒤에도 이렇게 웃을 수 있을 것 같으냐? 부지런히 공부해라. 뛰쳐지지 말고 앞서 가야지."하면서 겁을 주고 물어붙여 웠지 않은가? 나 또한 아이들을 척박한 황야로 내몰고 있었음을 뉘우치지 않을 수 없었다. 앞만 보고, 위만 쳐다보고 달려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가만히 뒤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시인이 손수 만들어 우려내 준 차를 마시고, 그가 깎아 말렸다가 나누어준 곶감을 먹고 그 곳을 나섰다. 다행히 아이들은 시인의 그 꾸밈없고 질박한 삶의 향기를 말을 줄 알았다. 돌아오는 길에 소감을 밀해보라 하니 우리 반 진영이 대답한다. "얼마나 크고 화려한 꽃을 피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나누고 누리며 소담스런 꽃을 피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다. 언젠가 이 아이들이 피울 꽃에서도 시인의 향기가, 연꽃의 향기가 나리라. ●

한 걸음, 한 걸음

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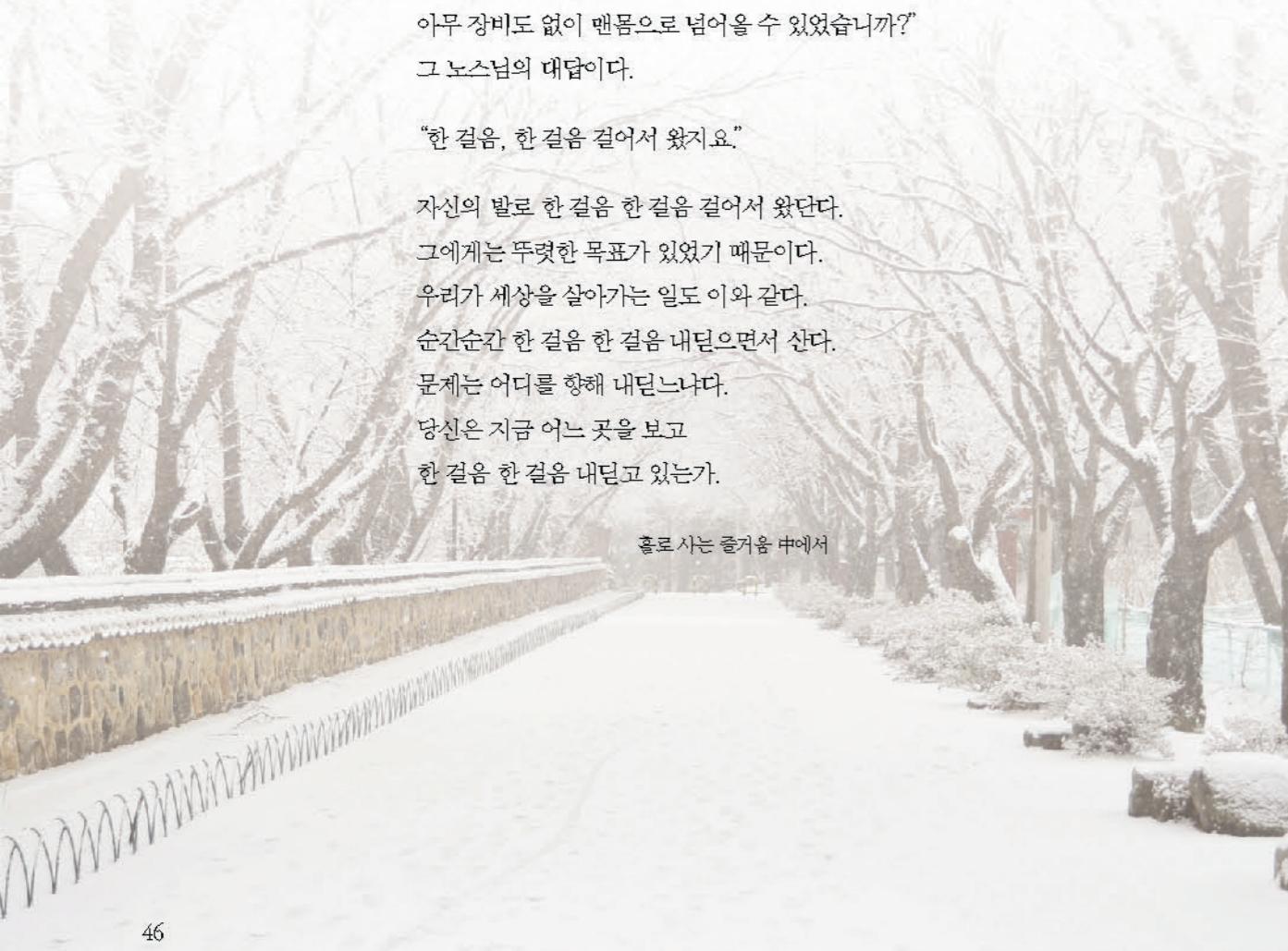
1959년 타베트에서

중국의 침략을 피해 80이 넘은 노스님이
히말라야를 넘어 인도에 왔었다.
그때 기자들이 놀라서 노스님에게 물었다.
“어떻게 그 나이에 그토록 험준한 히말라야를
아무 장비도 없이 맨몸으로 넘어올 수 있었습니까?”
그 노스님의 대답이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왔지요.”

자신의 발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왔단다.
그에게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도 이와 같다.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면서 산다.
문제는 어디를 향해 내딛느냐.
당신은 지금 어느 곳을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가.

홀로 사는 즐거움 中에서



殘 雪

굽이진 세상

휘돌아 나가

글/그림 사교과 현오

본래의 내 모습

진실을 찾고 싶다.

나를 버리고

시간을 버리고

오래지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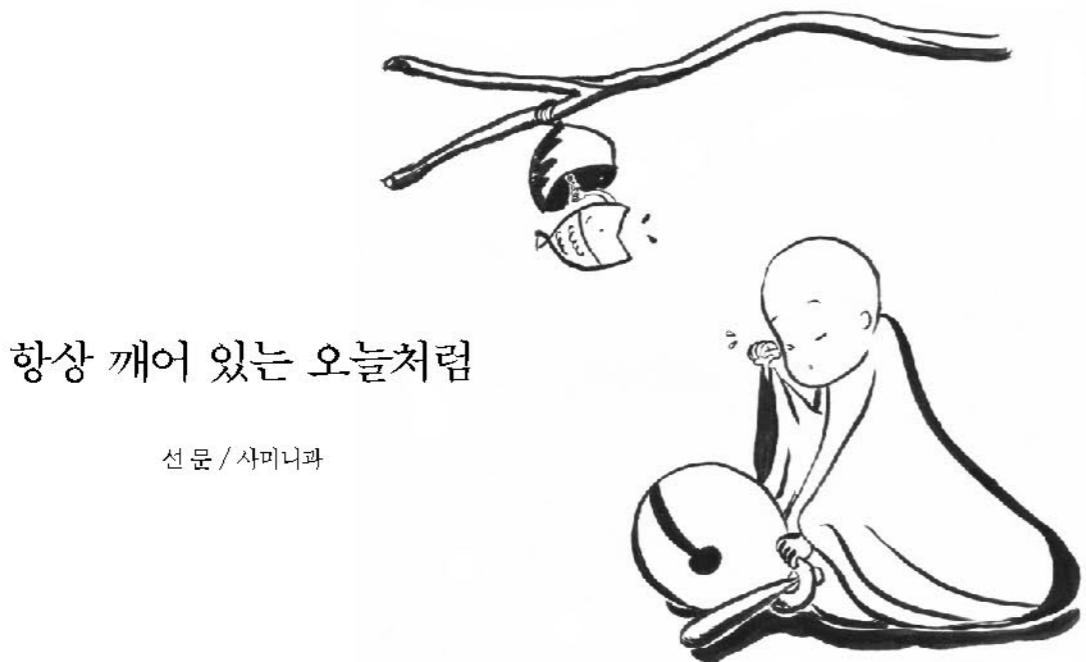
殘雪마저 사라져 버릴

텅 빈 얼굴을 하고

기댈 바 없는

色色 나부랭이도 이제 그만

허공길로 다 쓸어내리라.



항상 깨어 있는 오늘처럼

선문 / 사미니파

스산한 바람결에 흘날리는 그 시린, 온빛 눈발 사이를 걷고 있노라면, 세상 모든 존재의 적막함이 느껴진다. 사방은 온통 하얗고 인적없는 그 길을 걸을 때면 온기 있는 것은 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지금 이런 상념은 스치듯 사라지고, 운문사의 멋있는 설경을 뒤로한 채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오면 이내 곧 활동량을 줄이고 따뜻한 곳에서 편히 쉬려고만 하는 게으른 나를 보게 된다. 그리고 이런 나에게 새벽의 차가운 바람이 가사 깊숙이 스며들 때면 웃지 못할 지난날의 추억을 떠올리게 된다.

행자 시절, 유달리 잠이 많았던 나는 새벽예불 시간에 입으로는 무엇인가를 외우며 즐기 일쑤였다. 그럴 때면 어른 스님께서는 조용히 다가와 나의 귀를 잡아당기시며 신심이 없다고 꾸중을 하셨다. 또 시자 소임을 살 때는 즐음을 이기지 못해 빨래를 하다가 그대로 잠이 들어서 한동안 우스운 이야기거리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그렇게 행자 시절을 뒤로하고 새스님이 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이맘때처럼 눈 내리는 추운 겨울이었다. 도량석을 해야 했던 나는 일곱 소리도 듣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무엇인가가 나의 등을 세차게 내리치는 것이었다. 깜짝 놀라 시계를 보니 벌써 3시 5분……. 머리가 아찔해진 나는 가사도 수하지 못한 채 도량에 메아리치는 목탁소리를 뒤따라갔다. 당

황해하며 쳐다보시는 선방 수좌스님들 사이로 입승스님께서 도량석을 하고 계셨다. 머뭇머뭇 입승스님께 다가가자 매서운 눈초리로 하시는 말씀. “가사 수하고 와라.” 겁먹은 나는 그날 그렇게도 짙던 새벽 달빛 아래 비치던 입승스님의 온빛 눈 발자국을 종종 뒤따라가며 부끄러운 반성의 도량석을 끝마쳤다. 그리고 대중스님을 놔고롭게 한 죄로 입승스님께 참회를 갔다. 고개를 푹 숙인 나에게 입승스님께서는 인자하게 웃으시며 “그 시절에는 나도 잠이 많았어요. 잠 때문에 고민도 했지요. 그런데 때가 되고 간절 힘이 생기니 잠도 이겨지더라고요.” 하며 잔뜩 열어 있는 나를 토닥여 주셨다. 스님의 말씀에서 마치 시린 눈송이를 살며시 녹여주는 햇살과도 같은 따스함이 전해졌다.

그 일을 생각해보니 잠이 많은 나를 깨워준 것은 어쩌면 신장님이 아니셨을까? 하는 생각에 다시금 몸과 마음을 다잡아 매 순간 깨어 있는 내가 되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잠이라는 것이 마음먹은 대로 쉽게 다스려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새벽 3시에 일어나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가고, 9시 이후 자리 시간이다. 여섯 시간은 왜 그리 짧은지 눈 감았다 뜨면 다음 날이다. 그러다 보니 깨어 있으려 해도 짬짬이 쏟아지는 즐음에 꾸벅꾸벅 즐기 일쑤다. 특히 새벽 4시10분. 밖은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달빛을 머금은 시간, 깨어 있으려는 나와 자고 싶은 나의 사투의 시간이다. 그럴 때면 “삼경(三更)이 아니면 잠자지 마라.” 하시며 잠 안 자고 공부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셨던 옛 성현들을 생각하며 ‘부지런히 정진해서 늘 깨어 있어야지.’라고 다짐도 해본다. 그렇게 스스로를 경책도 했다가 때로는 위로도 해 본다. 그리고 늘 경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

잠이 많은 것도 인간의 근본 욕망인 오욕락(五欲樂) 가운데 하나로 경에서는 잠을 미군(魔軍)이라 일컫는다. “미군이 비록 얼음 침상에 눈이 불덮고 있다 하더라도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다가와서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거늘 하물며 자리를 두텁게 깔고서 다리를 펴고 널찍하게 누워 있으면서 어찌 능히 물리치겠는가?”라고 말하며 수면의 다섯 가지 허물을 말하고 있다. 첫째는 악몽이 많음이요, 둘째는 모든 천신이 보호하지 않음이요, 셋째는 마음이 정법에 들어가지 못함이요, 넷째는 밝은 상을 생각하지 못함이요, 다섯째는 정수(精水)를 내기 좋아함이다.

이러한 수마를 이겨낸 대표적인 인물로는 부처님의 10대 제자인 아나울 존자가 있다. 매일 꾸벅꾸벅 즐기만 하다가 부처님께 꾸중을 듣고부터는 잠을 자지 않고 수행한 결과, 비록 눈은 젖었지만 삼천대 천세계를 손바닥 위에 구슬 보듯이 훠뚫는 마음의 눈을 가진 천안제일이 되었다. 그의 수행은 게으른 나를 경책하는 듯하다. 그리고 밀려오는 수마에 눈이 감길 때면 나는 스스로에게 외치곤 한다. “선문아, 깨어나라. 항상 깨어 있는 오늘처럼!”

독송으로 발심하던 나날

덕인 / 사집과

샛별이 돌아나는 즈음엔 산빛이 더욱 점다. 점은 산빛에 둘러싸인 도량에 어둠이 내리면 명등스님의 발걸음이 바빠진다. 명등스님의 발걸음 따라 하나 둘 쳐마 끝에 불이 들어오고, 따스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각당 채에서는 스님들의 입선 계송이 도량의 고요를 가르며 흐른다.

“如來入涅槃이 近三千載라 命亦隨滅하니 岂有何樂이리오.
當勤精進호대 如救頭燃하고 但念無常하야 慎勿放逸이로다.”

청풍료의 80여 명의 스님이 만든 소리의 강이 나를 행자시절로 데려간다.

행자시절, 발심한 마음만 가지고 씩씩하게 출가했던 벌써 몇 년 전의 일이다.

새벽의 도량석 목탁소리가 올라가면 벌떡 일어나 점등을 하고 눈을 비비며 수각에 내려가 양치를 하고 동방아를 단정히 입고 ‘예불대참회문’을 가슴에 품고 대웅전으로 향한다. 이 모습이 행자시절 하루를 여는 첫 새벽의 모습이었다. 절집 일이 모두 생소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었다. 아마 출가할 때에 누구나 한 번쯤은 새벽 3시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걱정한 적이 있으리라. 특히 나는 새벽잠이 많은 탓에 걱정이 배로 다가왔다. 씩씩하게 등산화까지 신고 산문에 들어섰지만, 가슴 한 칸에 조금의 걱정으로 넘아 있었다. 그러나 웬걸, 출가하고 근 한 달 동안은 잠이 오지 않아 오히려 또랑또랑한 의식으로 새벽 3시를 맞이하곤 했었다. 그러나 본성이 어디 가겠는가. 한 달이 지나자 그동안의 수마가 한꺼번에 밀려 왔는지 머리만 대면 눈꺼풀은 자동으로 불어버리고, 몸은 방바닥과 혼연일체가 되니 또록또록했던 정신은 어디로 달아나 버리고 반갑게만 들려오던 도량석 목탁소리가 야속하기 그지없었다. 그렇게 절집 생활을 익혀갈 때 나에게 늘 발심하도록 일깨우는 소리가 있었으니, 큰방에서 들리는 스님들의 독경소리였다.

“夫諸佛諸佛이 菩薩寂滅宮은 於多劫海에 捨欲苦行이요……
破車不行이요 老人不修라 臥生懈怠하고 坐起亂識이니라.”

갓 출가한 더벽머리 행자라 스님들이 무엇을 읽는지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예불 후 들려오는 낭랑한 스님들의 독송소리는 ‘짜르르~’ 한 전기를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었다. 사실 독송이란 학습법이 소리 내어 읽고, 리듬을 타면서 뜻을 새기며 읽는다는 것이 생소하다면 더없이 생소한 일인데, 어째서 내게 그토록 가슴 가득 뭉클하고 빼근함을 안겨 주었는지 설명할 길은 없다. 이유야 어쨌건 행자시절 낯선 생활에 적응되는 계기가 각각 다르겠지만, 내겐 독송소리가 그 문이었다. 특히 ‘발심수행장’ 독송소리는 나의 에너지원이었다. 힘들 때 독송소리를 들으면서 큰방 방부를 들일 목표를 세워 나를 다잡곤 했다.

그리고 처음 방부를 들이고 경전을 읽고 나서야 독송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처음에는 누구나 생목소리가 나오고 리듬을 타기 어려워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고 호흡을 고르다 문장을 놓치기 쉽다. 그리고 강원에 와서 많은 도반스님들과 독송하면서 알게 되었다. 독송은 단지 경전을 소리 내서 읽고 새기는 학습법만이 아니라는 것을, 독송하면서 제 소리를 제 귀로 들으면서 ‘내가 누군가’ 생각하고 도반스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소리의 크기와 박자를 맞추며 ‘고르게 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 글귀를 읽는 것이 누군가의 이근(耳根)에 스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소리가 익는다”라는 옛말이 있다. 청풍료에서 흘러나오는 독송소리를 들으며 행자시절의 독송과 비교해보면 이 말을 조금은 알 듯하다. 그러나 지금 또 한켠으론 내가 그때만큼 풋풋한 신심을 내며 살고 있는지 뒤돌아보게 된다. 치문 첫 수업 때 강사스님께서 강원 4년 동안 하고 싶은 것 10가지 발원을 세워보라 하신 적이 있다. 그 10가지 중 한 가지가 ‘졸업할 때는 어떤 경전을 보아도 독해할 수 있도록, 독송을 하면서 뜻을 다 새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과연 나는 그에 맞게 노력하고 있는가?’ 질문을 던져본다.

소리가 익는다는 말이 실감되는 즈음, 행자 때 독송소리에 발심하던 풋풋함이
익숙함을 지나 일상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몸이 힘들다는 평계로 게으름
을 피우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점검해 본다. 그리고 발원한다.

“유정 무정 중생들이 독경소리 듣고 이근에 스치는
공덕으로 발심하여지이다.”

“대중스님네, 이 소리 새겨듣고 경전 보는
눈 밝아지이다.”

“여래께서 입멸하신지가 근 삼천 년이
지났음이라, 목숨 또한 감해지니 어찌 기
쁨이 있으리오. 무릇 정진호대 머리에 불불
은 듯하고, 또한 목숨 줄어듦을 분명히 알아
절대 방일치 말지어다.”

독송소리 흐르는 청풍료가, 금당이, 설현당이
저녁 하늘의 샛별보다 반짝인다.



행복 나눔

편집부



누구나 행복을 꿈꾼다. 어릴 적 마냥 순수하고 행복해했던 마음이 어른이 되고, 세상이라는 무명 속에 젖어들면서 진정한 행복을 잃어가고 있다. 그속에서도 세상이 그다지 냉담하지만은 않다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 되고 있다. 그래서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만큼 따뜻한 마음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많은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나눔'이 강조되고 있다. 「화엄경」에서도 우주 삼라만상은 서로 나눔으로써 존속 할 수 있거나와 인간 사회 또한 서로 나누지 않고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나눔'은 생존을 위한 중요한 덕목일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부유한 사람은 많아도 행복한 사람은 많지 않은 듯하다. 부와 명예를 다 누려도 채워지지 않는 행복은 무엇 때문일까? 부자가 되기보다 행복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일까? 삶이 행복하지 않고, 괴롭다는 이유로, 자살률이 높아지는 것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부처님께서는 영원한 행복을 위한 실천덕목으로 육바라밀을 제시하였다. 그 중 '보시' 속에 숨겨진 나눔의 행복을 찾아보고자 한다.

'보시'를 할 때는 물질적인 재물도 좋고(財施), 부처님의 말씀(法施)도 좋으며, 노력에 의한 자비의 봉사, 성안내는 얼굴, 부드러운 말 한마디도 좋다. 보시한다는 것은 반드시 여유가 있는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만이 갖는 특권이 아니다. 즉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각자의 마음가짐에 달린 것이다.

부처님께서도 탁발(托鉢: 발우를 들고 마을로 나가서 음식을 얻는 것, 단순한 구걸이 아닌 하나의 수행방식)을 나가실 때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치우침 없이 보시의 공덕을 지을 수 있도록 하셨다.

「잡비유경」에는 보시의 공덕을 이렇게 말한다.

하나를 심어 열을 놓고, 열을 심어 백을 놓고, 백을 심어 천을 놓고, 천을 심어 만을 놓고, 만을 심어 역을 놓아서 오늘의 선행으로 인해 진리의 도를 보게 되리라.

그렇다면 보시는 과연 얼마나 큽니까? 어떻게 베풀어야 하는가?

스님들이 사용하는 발우를 용량기(應量器)라 한다. '적절한 크기의 그릇'이란 뜻이다. 적절한 크기란 무엇인가? 그 정도 크기에 담긴 음식이면 하루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읊장에서 자주 읽게 되는 구절이 있다.

보시를 하는 사람도 보시를 받는 사람도 양(量)을 알아야 한다.

분수에 넘치는 보시는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탈이 나기 마련이다. 보시를 할 때에는 자기 분수에 맞게 적절하게 베풀어야 한다. 잘 살펴보면 선의의 행동에도 분수에 맞지 않게 욕망의 집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선의나 호의가 욕망을 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욕망을 선의로 포장하여 실천할 경우는 진정한 나눔이 아니다. 참다운 보시란, 보시했다는 마음조차 없는 무주상(無住相) 보시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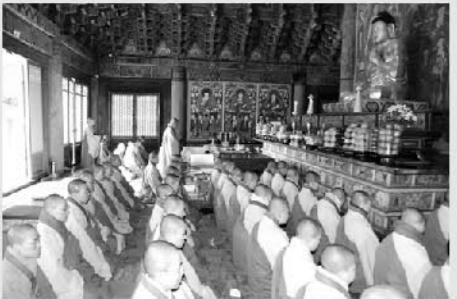
수보리여, 보살은 마땅히 그 어디에도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해야 하니니, 이른바 모양에 얹매임 없이 보시를 해야 하며,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감촉이나 생각에 얹매임 없이 보시를 해야 하느니라. 수보리여,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하여 어떠한 상(相)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금강경』

현재 불교계에서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정신적으로 빈곤한 현대인들과 불자들을 위해 더불어 행복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고 있다. 조계종의 유일한 기부재단인 「아름다운 동행」은 '비움으로 행복 찾기' 캠페인에 나섰다. 이 재단은 몸의 비움, 마음의 비움, 재물의 비움을 실천목표로 매달마다 108배 하기, 이웃을 위한 행복 기원, 10,800원(1배-100원) 기부 동참 캠페인을 펼쳐 어려운 이웃들을 돋고 있다. 또한, 조계종 사회복지 재단은 '만원의 행복, 만행(萬行)' 운동으로 1만 명의 회원이 매월 1만 원씩 보시하여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전하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몸은 하나인데 여러 개의 머리를 가진 공명조(共命鳥)란 새의 비유를 통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등 모두가 사회라는 큰 공동체의 연기(緣起)적인 눈으로 볼 때는 한 몸뚱이라고 하셨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 내가 소중하게 애지중지했던 몸의 살 한 점을 떼어 줄 수 있다면 그 공덕은 여래에게 공양하는 것보다 크다고 했다. 이러한 자비의 나눔도 불교계에서는 '생명나눔(장기기증, 어려운 이웃 의료비 지원)운동'으로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더불어 행복해지는 운동에 빛맞춰 우리 불자들도 조금씩 따뜻한 마음을 열어 자리이타(自利利他)의 보살행을 나누고 있다.

보시는 복을 얻는 일이기도 하지만, 베푸는 행위는 탐욕의 죄업을 소멸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 나누어 가짐으로써 나와 이웃이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하며, 비록 작은 나눔의 시작이지만 참다운 행복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전환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한다. 참다운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꽂처럼 피어나는 것이다. 탐욕으로 가려진 행복을 함께 나눔으로써 모두의 마음이 따뜻하고 풍요로워지길 발원해 본다. ●



▲동안거 결제 제사



▲설우 스님 특강



▲대구불교총연합회 창립총회



▲우진 스님 특강

운·문·소·식

- 11월 19일 동안거 결제제사가 있었고, 겨울철 결제공사 때 그동안 주지 소임을 사신 진성스님과 재무 법광스님의 사임 인사가 있었습니다. 근념해 주신 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새로 주지 일진스님, 사리암 영화스님(21회), 재무 정혜스님(21회)께서 살게 되었습니다.
- 11월 19일~22일 범인경사 선원장 설우스님의 '육조단경' 특강이 시청각실에서 있었습니다.
- 11월 20일 특강 중 스님께서 경인년 동안거 결제법문을 청풍료에서 해주셨습니다.
- 12월 1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불교총연합회 창립총회 및 법요식'에 어른 스님과 대중스님이 다녀왔습니다.
- 12월 2일 요가를 시작으로 염불, 피아노 등 외전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 12월 11, 18, 25일 통도사 전 강주이신 우진스님의 '몽산집' 특강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12월 11일~12일 '어린이 포교 추억(과거), 행복(현재), 밝음(미래)' 주제로 화순금호리조트에서 열린 제50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에 교회부스님 29명이 다녀왔습니다.
- 12월 17일 학인스님들의 차례법문과 화엄반 스님의 졸업법문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12월 19일 지난 9월 12일에 입재한 오백전 기도 회향에 신도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명성 학장스님의 '관세음보살 보문품' 법문이 있었습니다.
- 12월 20일~23일 동지맞이로 3박 4일간 휴강하였고, 동짓날 운문유치원에서 열린 '운문 가족 음악회'에 일진 주지 스님과 사교반 스님들이 참석했습니다.
- 12월 24일 겨울철 결제 포살법회가 청풍료에서 봉행되었습니다.
- 1월 2일 겨울철 自恣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1월 11일 '성도재일'을 맞아 대중스님의 철야정진이 있었습니다.
- 1월 18일 보현율원 제 2회, 승가대학 제 47회 졸업식이 대웅보전에서 거행됩니다.
- 1월 22일 40일간 겨울방학이 시작됩니다.
- 1월 22일 신입생 입학시험이 오전 7시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도와주신 분

- | | | | |
|-----------|-----------|-----------|-----------|
| · 최동인 불자님 | · 황수진 불자님 | · 박용환 불자님 | · 김지영 불자님 |
| · 구신희 불자님 | · 김수현 불자님 | · 박동조 불자님 | · 이화진 불자님 |
| · 임병기 불자님 | · 이기태 불자님 | · 이병준 불자님 | · 삼국유사연구원 |

*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雲門詒』 발간에 도움을 주신 분은 아래의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체국 701839-01-000335, 예금주 : 운문편집실)

*주소가 변경된 분은 편집실로 연락 주십시오 ☎ 054) 372-8834 (FAX 검용)

운문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 신입생 모집공고

전문적으로 부처님 경전을 다시 수학하고 싶은 대학원 학인스님을 모집합니다.

■ 모집대상 : 기본교육기관을 졸업하고 비구니계를 수지한 자
2011년도 봄 수계예정자 포함

■ 특 전 : 졸업 후 조교수 자격부여, 연구기간 중 연구비 지원

■ 전형방법 : 면접 및 구술

■ 준비물 : 가사, 장삼, 승려증, 필기도구

■ 시험일시 : 2011년 1월 23일 오후 2시

■ 제출서류 : 1. 수행이력서
2. 종단 기본교육기관 졸업(예정)증명서
3. 은사님 및 강주스님 추천서
4. 승적증명서
5. 주민등록 등본·초본
6. 건강진단서
7.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8. 증명사진(가사·장삼 착용) 2매

*승가대학 신입생, 보현율원 및 한문불전승가대학원생 모집 공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054-372-8800, 370-7100)와 운문사 홈페이지(www.unmunsa.or.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등 불 |



배경속 / 동양화

어둠 속의 보물

어둠 속에 보물이 있어도 뜰 불이 없으면 볼 수 없는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더욱 지혜가 있어도 놓히 알 수 없다.

눈이 빛내장이 있으면 아름다운 색깔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마음이 맑지 않으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볼 수 없다.

『화엄경』



저희들의 그 어떤 작은 공덕까지도 법계
일체중생의 행복과 해탈을 위해 회향합니다

雲門僧伽大學

714-881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1789번지 雲門寺 / 편집부 (054) 370-7139 / 종무소 (054) 370-7100 / <http://www.unmunsa.or.kr>

(운문·계간) 거울호·통권 제115호·2011년 1월 8일 발행·등록 1995년 3월 29일·등록번호 경북 바-01008 / 발행처·운문승가대학/발행인·명성(전임호)
고문·일진·편집·운문승가대학 문화부 / 편집장·장주 / 편집위원·도경, 닉언, 도우, 서경, 송벽, 보원, 도이 / 사진·덕해·삼화·승이
편집디자인· 미디어 (02)2285-3366